AUG 14 1981
EAST ASIAN LIBRARY
RM 10 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577 1981년7월28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uesday, July 28.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bscription fee $90. per year, $8.00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SECOND CLASS MAIL NP 9184

윤전기는 돈다!

본보, 우편파업중에도 계속 발간

광고효과 양호, 뉴스매체 사명에 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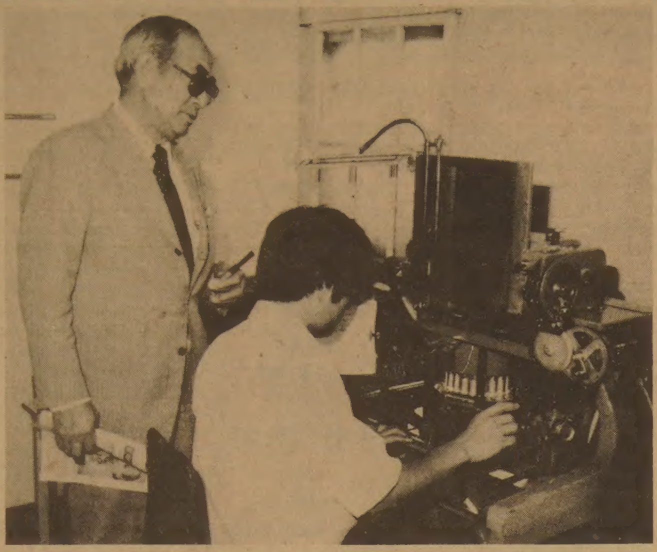
윤전기는 돈다!

우편파업 1개월. 그 속에서도 삼복더위를 무릅쓰고, 땀을 흘리며 굉음을 내면서 오늘도 돈다. 본사는 우편파업이 8월 들어서도 계속될 것을 우려, 당분간 신문발간을 중단하고 여름휴가를 가지려 했으나 28일 직원회의에서 "파업을 이기자"는 데로 의견을 모아 될수 있는한 휴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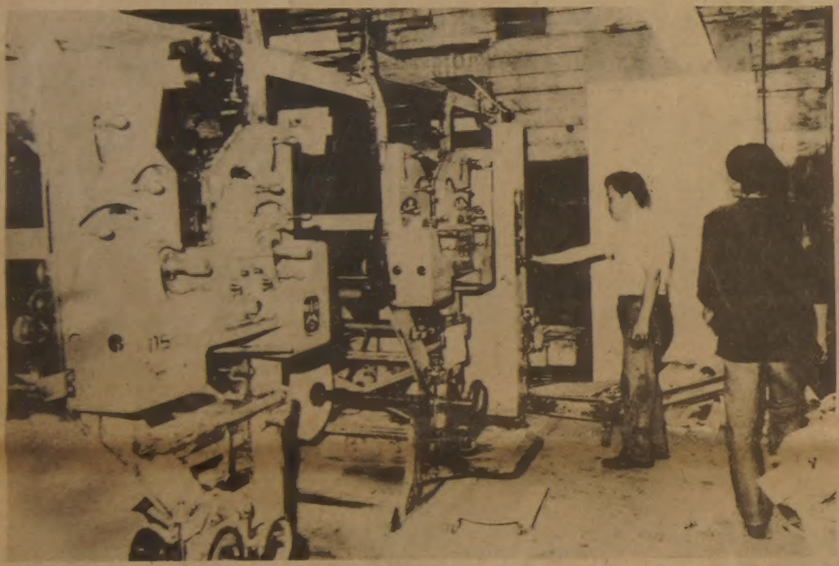
본사가 8월부터의 휴간을 심각히 고려한 것은 우편파업으로 구독료, 광고료등의 수금이 안되지만 지출은 계속되고 있는 점. 파업이 해제되어 밀린 신문을 부칠때 너무 오래된 신문을 독자에게 보내드리는 것은 뉴스·밸류상의 가치가 적다는 점. 총발행부수를 2배로 증가하여 식품점·교회등을 통해 무료배부하기 때문에 신문용지값이 늘고 교회등에 배달하는 비용이 늘어난 점등이다.

그러나 본사는 소설등 연재물을 읽는 독자를 위해 신문을 휴간할수는 없고, 또 이틀에 16면을 발행함으로써 매일 발행하는 것보다는 경비가 줄은 점. 8월중에는 파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휴간을 하더라도 윤전기 모기지등 고정지출비는 계속 지불해야 한다는 점. 광고효과는 정말 "한번 내보신 분은 알 정도"로 좋아 기사·광고의 매체로서 역할은 건재하다는 것등을 참작, 재정위기를 무릅쓰고 파업에 힘껏 도전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1인당 5백달러씩의 영구독자를 확보키로 했다. 5년치 구독료(현재는 $90이지만 겨울에 인상 예정)를 선불해 주면 그분에게는 10년이고, 20년이고 무기한으로 신문을 보내드린다는 것이다. 5월1일 사옥을 이전하고, 6월부터 윤전기를 가동, 일간을 발행하다가 29일부터 파업이라는 결정타를 맞고 고전중인 본사는 온 직원이 힘을 합해 슬기롭게 위기를 타개해 나갈 것이다.



◇한국언론계의 원로 홍종인씨(78)가 직원 격려차 27일 본사에 들러 박부용 식자부장이 치는 사진식자기를 보고 있다. 워싱톤서 열린 「한국미술 5천년전」 개막식에 참석한 홍옹은 부인 유수만 여사와 함께 지난 25일 토론토에 있는 사위 최정웅씨(에너지및 지하자원 상담가)집에 왔다. 홍옹은 우편파업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신문발간을 계속하는 점을 높이 칭찬하고 성공적인 위기극복을 당부했다.



◇윤전기가 땀을 흘리며 돈다. 우편파업중에도…. 공장장 김형근씨가 기계를 감독하고 있고, 김씨 뒤로 신문이 줄줄이 인쇄돼 나오고 있다.

한국업체 10개 포함

「포춘」지의 세계 대회사 5백개

(뉴욕)한국의 기업체 10개가 「포춘」잡지가 매년선정하는 세계대 회사 500개(미국제외)리스트에 포함됐다.

80년도의 판매량을 기준으로한 5백개 대회사 목록에서 한국의 7대기업은 재작년보다 상위순서로 올라갔다. 이들은 나머지 3개 기업과 함께모두 4백번째 이상의 순위에 들었다.

뉴욕서 발간되는 경제지 「포춘」은 판매고 증가분을 기준, 10대 회사도 선정했는데 한국의 럭키그룹(152.9%)과 쌍용그룹(96.3%)이 이 10대회사속에 포함됐다.

「한국화약」은 가장 저조했던 회사중 하나였으나재작년에 비하면 그래도 17개의 다른회사를 앞질렀다.

10한국기업과 순위는 다음과 같다. ( )은 79년 도의 순위.

현대그룹	72위	(80위)
럭키그룹	101	(227)
삼성그룹	125	(109)
한국정유	139	(165)
효성그룹	237	(258)
쌍용그룹	275	(425)
포항제철	297	(321)
선경그룹	322	(432)
국제그룹	338	(334)
한국화약	376	(393)

한국일보
533-2361

「아코디온」으로 두각

고유진군, 콩쿨서 1등

고재호(…)씨의 장남 유진(12)군은 아코디온 연주로 두각을 나타냈다.

미시사가 남큰학교 7학년생인 유진군은 지난 19일까지 콘스텔레이션·호텔에서 열린 1학년급 A그룹 아코디온 독주에서 "가을바람"(Autumn Breege)을 연주 1등을 차지했다.

「온타리오·콘저버토리·오브·뮤직」이 주최한 이대회에는 150명이 아코디온 부문에 출전했다.

「온타리오·콘저버토리」는 「로열·콘저버토리」와달리 아코디온, 기타, 전자올갠등 주로 세미크라식 계통을 가르치는 교습기관이다.

유진군의 연주에 대해심사원은 "유진군의 「가을바람」을 들은사람은 실제로 가을에 부는 바람을 들은 것이다"라고 평했다.

유진군은 "실생활에 관련이 많은 음악을 가르치겠다"는 고재호씨의 희망에 따라 4년전부터 아코디온을 배웠다.

◇아코디온을 연주하는 유진군.

남북 올림픽 단일팀

한국측 다시제안

(서울27일=연합) 한국올림픽위원회는 북한에게 남북 올림픽단일팀 구성을 다시 촉구했다.

지난 6월의 1차 제안을 되풀이한 한국올림픽위원회는 27일 올림픽팀등 모든 국제경기에 단일팀을 보내자고 제의했다.

올림픽위원회 조상호위원장은 특별성명을 통해 "한국측이 제안했던 남·북한 단일팀에 대한 북한의 무반응은 6천만 남·북한동포들의 기대에 어긋나는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회장을 겸직한 조위원장은 "남·북한의 체육인 교류와 더불어 단일팀 구성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인의 단결력을 보여주며 한반도 평화안전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대투입을 요청

출판협회, 우편파업 제소

장기간의 우편파업 으로 재정위기에 처한 캐나다출판업계는 정부가 군대를동원, 우편업무를 재개하라는 법적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5백여개의 전문직종별잡지발행자협회「더·캐나다·비지네스·프레스」의알렌·골드버그회장은 22일"발행자들은 우편파업으로 수십만 달러씩 손해를 보고있고, 직원을 임시해고했으며 일부 소규모 잡지회사는파산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협회는 매월 총 750만부의 잡지를 발행한다.

골든버그회장은 우편 종사원들은 연방공무원 법에 의해 임용했기 때문에 정부는 임의로 우편노조원이 아닌 사람을 우편국에 고용할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대법원에 제소할계획이다.

한편 불법적 파업을 감행하려던 미국 우편노조는 정부와 협상에 성공, 파업에 돌입하지 않았다. 미국의 우편노조원은 법적으로 파업을 할수없다.

황태자 결혼 TV중계안내

29일로 다가온 영연방국의 찰스황태자와 다이애나양의 결혼식및 전야제 광경이 한국등 세계52개국에 현장 중계된다.

약 7억5천만명이 이 역사적 결혼식을 TV를 통해 볼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토 지역의 TV중계시간은 다음과 같다. 이곳 시간으로는 새벽에 거행되므로 새벽낚시 가듯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현장중계를 놓친다.

◇결혼식 전야광경
28일 밤10~11시 NBC
밤11 : 30 CBS

◇결혼식광경
29일 새벽 4 : 30~상오7 NBC
4 : 30~9 CBS
5 : 00~ 전TV국
밤 8~10 CBS, CBC, CTV

결혼식 하이라이트
밤9~10 ABC 하이라이트
밤10~11 결혼식날의 마지막광경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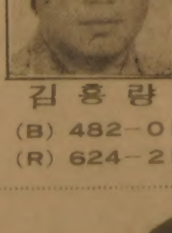
각종보험

백 용 빈
SUNLIFE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B)497-3800
(R)284-9052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KAWAI KEYBOARD CENTRE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아노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카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카나다 통계국 발표>
■카나다 최고이고, 유일한 한국인 딜러가 교민들에게 특별 할인 판매 합니다.
MARKHAM PLACE MALL
2900 STEELES AVE. EAST. THORNHILL
881-8211
윤 호 섭

• 생명교육보험
• RRSP(세금공제 은퇴저축)
• 은퇴연금
• 사업보험
• 화재, 자동차보험

김 흥 량
(B) 482-0166
(R) 624-2103
IMPERIAL LIFE
covers you for life

제일여행사
■모국방문 특별요금
요금 : 성인왕복 $1180+(세금) $12.50
어린이 왕복 (2~12세) $645+(세금)$6.25
출발일자 : 8월7, 14, 21, 28일
대한항공 뉴욕경유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각종단체 관광요금
유 지 원
621 BLOOR ST. W.
(B)535-2377
(R)366-08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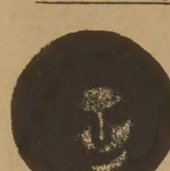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 (416) 533-2361

M5S
East Asian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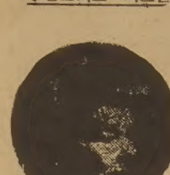
역사에 신화 남긴 위대한 여성

여성으로서 각계에 길이남을 신화를 남긴 인물은 누구일까. 〈타임〉지가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에 뽑힌 여성이 세명있다. 또 〈아카데미〉여우 주연상을 일생에 세번이나 탄 여배우도 있다. 각계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여성들은 누구일까—.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엘리자베스 여왕



◇잉그리드·버그만



◇캐더린·헵번

다음의 질문은 마조리·P·K·와이서 진·S·아바이터가공저한 「여성리스트(Woman List)」란 책에서 뽑은 것이다.

▲문=여성으로서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에 선정된 사람이 있는가?

〈답〉=지금까지 3명의 여성이 선정 되었었는데 그들은 왈리스·와필드·심프슨(1936), 장개석씨부인(1937), 엘리자베스 여왕(1952)이다.

▲문=모녀가 노벨상을탄케이스는지금까지 단 한쌍 뿐이라는데 그들 모녀는 누구인가?

〈답〉=그들은 1903년과 1911년에 노벨상을탔던 마리·큐리부인과, 1935년에 수상한 그의 딸 아이린·졸리옷트·큐리이다.

▲문=모자가 동시에 의회의원에 선출된 케이스가있다. 그들은?

〈답〉=1952년, 83회기에 선출된 프란시스·페인·볼톤과 올리비에·페인·볼톤. 이들은 오하이오주 출신 공화당원이었다.

▲문=20세기에 들어서서 누구보다도 메달상패를 많이획득, 스포츠의 챔피언으로 일컬어지는 체육인은 누구인가

〈답〉=베이브·디드릭슨·자하리아스.

▲문=의회로부터 명예 메달을 받은 유일한 여성은누구인가?

〈답〉=윗과 의사였던 메리·워커. 그녀는 남북전쟁당시 제52오하이오연대에 봉사한 공로로 메달을 수상했다.

▲문=아카데미상을 세번이나받은 여배우는누구인가?

〈답〉=캐더린·헵번과 잉그리드·버그만. 캐더린·헵번은「모닝·글로리」(1932), 「초대받지않은손님」(1967)「겨울사자」(1968)에서 수상했으며, 잉그리드·버그만은「가스등」(1944), 「안나스타샤」(1956), 「오리엔트특급열차 살인사건」(1974)으로수상했다.

▲문=영국장교중 평생 비밀을 간직했던 사람이있다. 누구이며 어떤비밀이었는가?

〈답〉=군의관이었던 닥터·제임스·배리. 19세기의 군인이었던그는 죽은뒤에야 비로소그가 마이란다·스튜어트라는 여성이었음이 드러났다.

▲문=「Ain't She Sweet」라는 노래가 만들어진 동기는 무엇인가?

〈답〉=작곡가 밀톤·에져가 갓태어난 자신의딸샤냐를위해 만든곡이다.

▲문=34회생일날, 배럴(통)을타고 나이아가라폭포를 건넌 여성은 누구인가?

〈답〉=애니·테일러. 1901년 그녀가 건넌이후, 아직까지 아무도 그녀를 따른사람이없다.

▲문=소크라테스의 선생은 누구였는가?

〈답〉=페리클즈의 정부였으며, 수학자였던 아스파시아.

일본어 사용거부

JAL한국노조 대항 조처

(서울27일=연합) 128명의 노조원을 가진 일본항공(JAL)의 한국인노조는 오는 1일부터 일본어 사용을 거부하고 한국어와 영어만을 통용어로 사용키로 25일 결정했다.

한국인노조는 일본어사용거부와 함께 임금인상및 차별대우 개선책을 요구했다.

금년초부터 계속된 한국인노조와 일본항공의 분쟁은 지난6월 JAL의 한국인 노조원들이 일본항공의 차별임금인상에 항의, 한국인 종업원들이 어깨에 검은 띠를 두르고 근무한데서 시작됐다.

금년들어 일본항공은 한국인들의 임금은 34% 를올렸고 비한국인들의 임금은 이보다 훨씬 많이 인상했다.

일본항공측은 한국노조의 검은 어깨띠 운동에 보복, 종업원들과 가족들에게주던 JAL 무료항공권및 할인표 제도를 없애 버렸다.

<교계소식>

여호와의 증인 지역대회 개최

왓취타워 성서책자협회 캐나다지부는 금년도 토론토 여호와의 증인의 지역대회를 오는 8월6~9 일까지 Hwy27과 렉스데일에 있는 우드바인 경마장에서 개최한다. 이 대회는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포르트갈어등으로 동시 진행된다.

여름수양회·캠핑

대건회·학생회·성가대

토론토한인성당의 젊은 부부클럽인 대건회는 8월1일~3일, 배리스·베이의 서니힐 캠프장에서, 동교회 성가대는 7월31~8월3일 Earl Rowe 주공원에서 각각 신심수양회를 갖는다.

한편 한맘학생회는 오는 31~8월3일(3박4일)여름캠핑을 한다.

새 회장단 선출

천주교청년회

토론토한인천주교회 청년·대학생단체인 청년회는 지난 26일 정기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새 회장단을 선출했다.

회 장 : 김도홍

부회장 : 이웅건·길예경

<시 언>

순수미술가와 상업주의

김 정 진

세계역사가 시간속에 서의 경쟁이며, 이익이나 권력, 또는 재산을 얻기위한 치열한 싸움이라면, 우리들의 정신사(史)는 바로 그것의 정반대일 것이다.

시간속에서의 경쟁일때 항상 문제가 되고, 또 요구되는것은 누가 빠르며, 누가 힘세고 운이좋으며, 또 누가더 속되고 악독한 면을 갖고있느냐일 것이다.

그러나 정신행위및 예술행위에 있어서는 약삭빠름이라든가, 운이 좋다든가, 나아가서 누가더 독하고힘세냐 하는따위의 것들은애당초 문제가 되지않는다.

정신행위및 모든 예술행위란 헤르만·헷세(Herman Hesse, 독일의시인, 소설가(1877~1962))가 지적했듯 시간속에서시간밖으로 탈출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되고 간절히 요구되는것이 있다면우리들의 사물을 보는눈이순수한 관조를 잃지않아야하며, 거대한 세속과 상업주의에서 자기를 구하려는힘 즉 금욕주의정신의 배양인 것이다.

순수한 관조의눈과 성자와도 같은 금욕주의 정신이, 미술가(모든 예술가 들에 해당되겠으나 여기서는 미술가만을 가리킴)들의 마음에 지탱되어 질때 비로소 사물의 에센스가, 그리고 미의 문이열려지리라.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부동산 투자를 결심하는 미술가가 있을진데 그에게서 순수한 관조의 정신을 기대할수 없으며, 기침을한것 까지도 소위 약력에 넣어야 마음이 놓이는 미술가 에게서 우리는 금욕주의정신을 기대할수 없으리라. 이미 그러한 미술가라면 상업주의의 수렁에 너무나 깊이빠져있어오히려 그 수렁에서 나오기를 두려워할 것이다.

관조의 눈과 금욕주의의 정신은 자동차 면허증을 따듯, 어느날 모(某)시, 소정의 시험(test)을 거친후 획득되어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을 두고 수련되어서 쌓여진 자세(Attitude)와 천성의 자질(Temper)과 노력등 인간완성이라는 차원을 향해 성자와 같은 발 걸음을 이미 시작했을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베토벤(Beethoven)이 후일 나폴레온을 경멸할 수 있었던 것과 또스또에프스키(Dosto-ev-ski)가 그의 소설에서 전당포 노파를 거침없이 살해하는 데에서부터 양심의 싸움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빤·고호(Vincent Van Gogh)가 "감자를 먹는 사람들"을 그릴 수 있었고, 또 그의 그림에 성(姓)을 쓰지 않았으며(당시 권세가인Calvinist들 밑에서 목사집안인 Van Gogh家까지도 속수무책으로 굴욕을 감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수치감과 혐오감 때문이었다고 함) 또한 우리의 서정주(徐廷柱) 시인같은 분은 국화꽃 한 송이가 피는 밤에 도무지 잠도 오지 않았었나 보다.

만일 미술가의 눈에 보이는 자연이 그 아름다움의 상탄(賞嘆)보다는 부동산 투자의 가치 여부가 더 중요하며, 미술가에 있어 사람관계의 가치척도가 그 사람의 이용도의 퍼센터이지에 있다고 한다면 그얼마나 가증스러운 당혹스러운 일이겠는가!

그들에겐 이미 또스또예프스키의 문학은 거치장스럽고, 베토벤의 음악은 부담스러우며, 빤 고호의"감자를 먹는 사람들" 이라는 그림보다는 그가 귀를 잘랐다든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든가 하는 일에 오히려 신명이 나리라.

그리하여 이 상업주의에 빠진 미술가 들에겐 세련된" 칵테일파티가 필요하고, 우아한 빛깔의 포도주잔이 서로 부딪치듯 쉽게 결탁할 수 있는 평론가들이 있어주면 만사는 형통인것이다.

옛부터 그 나라 관리의 청·탁(淸濁)으로 나라의 국운이 좌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정신인들(종교인, 철학자, 교육자등)이나 예술인들의 순수함과 그렇지 않음은 그 나라의 문화성쇠와 직결된다 하겠다.

오늘날 이 세기말적인 추세로 비대해져 가는 상업주의의 홍수 속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 북미등은 세계의 미술가들의 수가 날로 불어가고 있다.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토론토만 해도 해마다 우리 교포 미술가의 수가 불어나고 있으며, 매학기 마다 미술대학에 입문하는 젊은 미술학도들의 수 또한 불어나고 있음은 매우 좋은 현상이라 하겠다.

이 글을 쓰는필자자신도 「그림 그리는 일」로 만학(晩學)의 문턱에 섰거니와 평소드껴고 보이는 일들을 편편이 적어보았다. 만학을 하는 그림학도로서 늘 마음 아프게 걸리는 일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비단 정치분야 뿐만이 아닌 사회각층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이 상업주의의 만연으로 인해 그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함이다.

마치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버거가 북미 어린이들의 본래의 입맛을 버려놓듯, 오늘날 이 가공할만한 상업수의의 힘은 우리의 모든 분야, 심지어 교육이나 문화부문까지도 단숨에 집어삼킬기세로 번져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상업주의의 악취와 그 힘으로 만연된다 해도 정신 생활의 원리나 예술의도(道)가 물질적 이익을 위해 배반되어서는 아니되겠다.

만일 성직자나 교육자 또는 예술가가 탐욕주의및 상업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있다면 그들에게 대체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영혼의 문이 열리고, 진리가 찾아지고, 미가 결실되겠는가?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이다.

생각컨대, 미술가의 길이란 그렇게 멋(Fancy)이 있고 기름기 윤택한 그러한 길이 아닌 것같다. 이 길이란 존·번연의〈천로역정〉의 길이며, 땡볕 아래서 허리를 구부리고 묵묵히 밭갈이를 하는 농부의 길이 아닌가 한다.

<독자시>

이민시간

송 순 태

바쁘다.

이렇게 바쁘다가는
읽다가 덮어둔 삶의 이야기
가슴 저 밀실에서 듣던 「바하」의
고뇌와 영광의 올갠,
그리운 이들의 앨범,
그 기억들의 페이지
그래, 그 모든 갈피를 잊어버리겠다.

떠나와서
태어나고 자란 땅,
살을 비비고 사랑하고 미워하던
깊은 정
더운 핏줄들과 헤어져

떠나와서
달리는 출근길,
차창에 찢어지는 바람
떨어지지 않는 지난 하루의 피로.

빵만 위함은 아닌데
왜 이렇게 바쁘가?

생활 아닌 생존을 위해
기쁨이 아닌 일락(逸樂)을 위해
보람 아닌 보수를 위해

조급히 흐르는 시간의 급류,
덧없이 절단되는 생명의 원단(原緞).

이제는 저항해야지 —
시간은 황금이라는 말의 속임수,
나를 볼 수 없는 프로그램의 거울,
우리 사랑의 이야기를 중단시키는 시끄러운
초침(秒針) 소리, 그리고
영혼의 맑은 시선을 가리는 일체의
시간의 유혹에
저항해야지.

이렇게 바쁘다가는
그래, 정말이지
내 유일의 삶, 그 주소마저
잊어버리겠다.

「아고스」팀 대패

해밀톤에 무려 57 : 13점

토론토·아고스는 25일 해밀톤·윈 스타디엄 에서 속개된 캐나다·훗볼 리그(CFL) 에서 해밀톤 타이거스팀에 57 : 13이란 엄청난 스코아 차이로 대패, 결승토나멘트 진출이 암담해졌다.

3만여명의 관중이 운집한 이 경기에서 아고스는 44점이란 큰 스코아 차이로 패배, 또하나의 불명예스런 기록을 추가했다. 아고스팀의 종전 패배기록은 57년에 오타와에게 55 : 14로 진 41점 차이였다.

아고스는 이로써 CFL 9팀중 1승도 못올린 유일의 팀이다. 현재 토론토 아고스팀은 4패로 최하위이다.

이날 아고스를 물리친타이거스팀은 현재 3승1패동부리그 최선두를 달리며 CFL 작년도 준우승팀이다.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㉝

팔리·모왓 원작, 현재후 옮김

갓난 새끼나 햇사슴들을 제외하고 내가 관찰 한 바로는 모든 사슴들이 나이에 따라서 상당한 기생충에 좀먹히고 있었다. 여기에 재미있는 점은 모든 촌충과 선충류촌충이 적어도 2단계의 생활과정이 있다. 그것은 즉 이들이 완전한 생명을 살기위해서는 사슴이 아닌 다른 동물이 필요하다.

포낭에 싸인 기생충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물이 다른 짐승에게 잡혀 먹혔을때만 완전하게 자랄수가 있다. 이 다른 동물이 가끔가다 사람일 경우가 많다.

사슴을 먹는이 토착민과 나자신의 내장속에 무슨 기생충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또한 알고 싶지도 않고 이런것을 끄집어 내게 된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만일 사슴고기를 먹음으로써 기생충이 옮아 병들게 된다면 현재 에스키모들이 전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렌에서 지낼때 사슴고기를 날로 먹었던것을 겨우 위로해 볼려고 하는 참이다.

8월 말이되면 새로운 기분을 사슴들이 느끼게된다. 천천히 그리고 작은 떼를 지어 북쪽을 향하여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며 발정기가 다가옴에따라 오랫동안 계속되는 긴장된 분위기가 초조한 짐승들을 덮친다. 이때쯤 되면 사슴들이 살이찐다.파리떼가 없어져서 마음놓고 질은이끼와 메마른 땅에 쭉 깔린 작은나무의 잎사귀를 뜯어 먹을수 있다. 늦은 여름까지 수사슴들은 약 3인치 정도의지방분이 등가죽밑에 쌓여서 발정기간동안 아무것도 먹을시간이 없기때문에 이에 대처하게 된다.

이제 사슴들의 번쩍이는 여름털이 짙은 갈색으로변한다. 수사슴들의 큰 뿔은 하늘높이 아치를 세운다.

암사슴들도 새끼를 낳고 보살피는 고통에서 벗어나 이제는 기운이 완전히 회복되어 있다.

다시 날씬해 지고 발정기간이되는 10월달에는 열정적이 못되며라도 적어도 수동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다.

암사슴들도 뿔을갖고 있는데 수사슴의 뿔에 비하면 조그만 스파이크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전북미를 통해서 뿔을갖고있는 유일한 암사슴이라는데에 흥미를 끈다.

발정기에 이르면 놀랄만한 광경과 소음을 들을수 있다. 몸이큰 수놈들은 그칠사이없이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은 대낮이나 캄캄한 밤이나 계속되고 뿔과뿔이 서로 맞부딪치는소리가 너무크고 그치지않아 그주변에 캠프를치고 있으면 잠을잔다는것은 거의불가능 하다. 또한 싸움이벌어질때는 분노가 절정에달하여있고 굉장히 시끄럽다.

몸집에 비하여 굉장히커다란뿔은 싸움을하는 무기로서는 큰 효용이 없으며 다만 싸움에서 진놈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따름이다. 물론 두마리가 싸울때 서로 뿔이 엉키어 버리는 무서운 위험도 있어서 뿔이서로 엉킨채로함께 죽은 사슴들의 뼈를 자주보게 된다.

몇주일 동안 싸움에 이긴 수놈이 암놈들을 말아서 보호하게 된다. 그러나 사타구니의 강한충동이 채워지고 쇠잔해지면 나이들은 수놈들은 암놈의 규방을 떠나 각자의 분리된 생활로 돌아간다. 첫 겨울눈이 올때까지 북쪽으로 부는 바람은 계속된다. 그러나 어떤날 겨울은 시꺼멓게 북극의 눈보라를 몰고 오기전에 짧은 경고를 주는데 첫눈이 쏟아지면 사슴들은 공포에 휘말려 버린다.

미쳐버린것처럼 날뛰다가 한마리의 짐승이나 된것처럼 똘똘뭉쳐서 남쪽을향해 끝없이 떼를지어 급히 내려간다. 각 사슴떼는 만나는대로 함께 합쳐지고 서로 바짝 붙어서 걷기때문에 마치 큰 육지가 한개의 무서운 파도가되어 남쪽의 수림을향해 난폭하게 내닫는것이 보인다.

1947년가을 나는 이 공포에 사로잡혀 도망을가는 사슴의 물결을 보았다. 사슴이 지나간 어느날 육지는 북쪽으로 끝없이 내닫고 움직임이 전혀 없이 텅비어있어 다만 희미한 하늘에 까마귀 한마리가 유유히 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이 되자 육지는 다시 살아났다. 강물은 부풀어 오르는 사슴떼가 메워버렸고 쉴사이없이 들려오는 발목에서나는 찰랑거리는 소리가 남쪽의 여름밤에 들려오는귀뚜라미 소리보다 더 질게 들려왔다. 그러나 3일후에 똑같은 육지는 다시 죽은듯이 고요했다.

축발이된 도랑위를 한마리의 여우가 한가로이 따라가는것이 이 넓은 평원위에 움직이는것의 전부였다. 겨울에 바렌은 살아있는것이 없는 비어있는 것같이 보이지만 아직도격리되어있는 적은수의 사슴떼가 넓은지역에 흩어져있기도 하지만 눈이덮인 평원에있는 작은 전나무숲에서 은신하고 있다. 이들숫자는 매우 적어서 여우나 늑대같은 눈속의 그림자들 외에는 발견할수가 없다.

겨울이 닥쳐와 남쪽으로 내려간 무리들과 떨어진이들은 바렌에서 눈속을 헤쳐 이끼를 뜯어먹고 살아야하는 불안한 목숨이다. 나무사이는 바람때문에 더 많은 눈이쌓여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갖는위험은 남쪽의 숲속에서 겨울을 보내는 사슴떼들이 당하는위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슴이 겨울철을 보내는 마니토바 북쪽의 숲속에서 오랫동안 사냥을하던 백인을 만나본일이 있다.

10월 어느하루는 두개의 호수가서로마주치는좁은곳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눈이덮이지않아 얼음은 투명했다. 밑을 내려다보니 그 좁은 밑바닥이 수면에서 몇인치만 내려가면 닿을것같은 헤아릴수없이 엉킨뼈들로 꽉차 있었다. 뼈들이 흩어진 넓은지역은 수놈의 큰 뿔만도 수천개가 될듯 했으며 이 납골당에 뼈를묻히고 죽은 사슴들은 이것보다 수십배나 될것이다.

이곳을 구경시킨 후에노인은 처음 이 호수 근방에 집을지었을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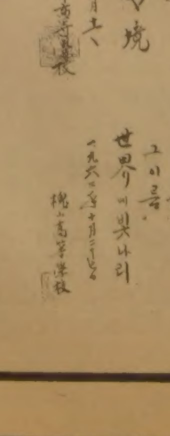
(계속)

〈김미영 한국 민속무용 연구소〉

MI YOUNG KIM'S KOREAN FOLK DANCE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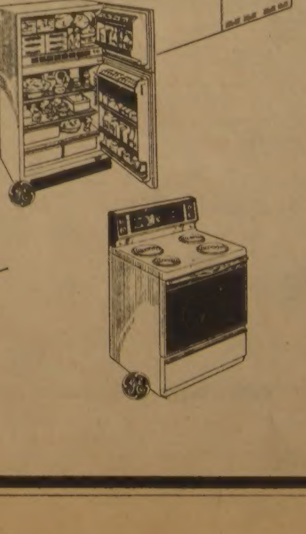
경력 :

- 6세부터 부친 김윤학씨 사사
- 제1회 전국국교(이화여중·고 및 조선일보사 공동주최)무용콩쿨대회 1등 수상
- 제 회 전국중·고교 무용콩쿨대회 1등 수상 (이화여대 주최)
- 배화여중·고 동창회 주최 무용발표회 개최
- 김미영 무용발표회 수회 개최(한국예술극장, 전국)
- 무용연구소경영(서울돈암동 12년간)
- 일본및 유럽순회 공연
- 현 김미영 한국민속무용 연구소 경영



〈만5세 이상 남·녀 어린이 지도 합니다〉
201 VAN HORNE AVE. #509(Donmill × Finch)
499-5079
※고전무용에 필요한 무대장치및 소도구 제작에 오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偉信電器地毡公司
WILSON APPLIANCES & HOME FURNISHINGS
BUY NOW & SAVE!
각종 전자제품. 냉장고 세탁기, 드라이어.
박리다매를 목적으로 모든전자제품 특별세일.



593-1801, 1802
83 GERRARD ST.
(LuCliff Place · Bay & Gerrard)

夫婦동시 海外여행 내달부터 全面해제

國務會議、旅券法시행령 議決

모든旅券 5년간 複數사용

觀光은 50歲이상에 83년부터 發給

共産18國 제외 全域대상
觀光여행엔 一定額 預置
商用、수출실적提出 폐지
海外 모든親知방문 가능

오는 8월1일부터 夫婦동시해외여행이 전면 허용된다. 또 방문, 학술短期연수, 觀光목적을 제외한 모든여권이 有效기한 5년의 複數여권으로 바뀌어 이기한동안 여행목적이나 횟수에 제한없이 무제한 해외여행을 할수있게된다. 이같은 조치는 외무부가 마련한 旅券法시행령이 24일하오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확정됐는데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는 해외觀光여권은 만50세이상인자에 한해 83년1월1일부터 발급키로 이 시행령은 규정하고있다.

그런데 관광여행및 親知초청·방문 여행목적을 위한 여권발급을 신청할때는 一定額의 預置金또는 積立金納入證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구체적인것은 관계부처에서 검토중이다.

同시행령은 지난6월17일 정부가 立案한 국민해외여행擴大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것인데 이 시행령의 활용은 오는 28일 여권법시행規則이 확정된후 8월1일부터 공식발효한다. 同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旅券발급대상확대

商用旅券의 경우 지금까지 발급사유가 돼온 수출실적 제시제도를 폐지, 賣渡계약서, 注文書, 초청장, 기술硏修계약서만의 제시로도 여권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親知초청방문은 지금까지 초청범위를 3等親이내의 血族및 인척에만 국한했으나 '82년 7월1일부터는 항공료, 체재비등을 초청자가 부담하는 조건하에 국외에있는 모든친지로부터 초청을 받을수 있도록 완화했다.

旅行國일괄인정

지금까지 商用복수여권에만 인정해온 여행국 一括허가제도(네거티브·시스템)를 모든 여권에 적용한다. 따라서 공산권 18개국을 제외한 해외 全域을 자유롭게 여행할수있으며 여행목적지를 여권에 일일이 기재할 필요가 없게된다.

具備서류간소화

신원조회신청書式을 1회記載 複寫紙를 사용, 신청서 소정의필요部數를 제출할수있게한다. 또 여권신청및 교부시 필요한 본인 인감증명서제시를 생략하고 관계부처추천및 조회제도를 폐지한다.

문젯점補完

일시귀국제도를 폐지하고 특히 위장 이민방지를 위해 해외居住여권소지자의경우 국내滯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또 誓約위반, 허위사실기재, 기타부정한행위로 여권의 발급또는 기재사항을 변경받은자에 대해서는 향후 1년이상 10년간 여권발급을 제한토록 규정했다.

이 시행령은 경과조치로서 同시행당시의 유효한 복수여권, 官用및 외교관여권으로서 82년 7월31일까지 새여권으로 경신발급신청을 하지 않을경우 제6, 9, 12條의규정에도불구, 유효기간이 만료된것으로하며 ▲거주목적의 단수여권 ▲발급당시 유효기간이 2년이상인 單數여권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1년이상인 여권은 복수여권으로 발급된것으로 간주토록했다.

시행령은 또 오는9월30일까지는 종전의 여권용지에 의해 여권을 발급하나 82년8월1일이후에도 계속 사용코자할 경우 새여권으로 발급신청을 해야하며 同시행일이전에 발급된 單數일반여권으로서 부칙 제2項各號…

◇新·舊旅券法 施行令 비교

現行	改正案
<發給대상緩和>	
▲부부동시여행제한(만50세)	▲부부동시여행 연령제한 해제
▲商用목적여행 경우 일정액의 수출실적 요구	▲商用목적여행 경우 賣渡확약서, 주문서, 초청장, 기술계약서 등으로 여행가능
▲3等親이내의 血族및 姻戚만 초청가능	▲항공료, 체재비등초청자 비용부담경우 국외에있는 모든친지로부터 초청가능(82년 7월 1일부터)
▲관광여행 不許	▲50세이상 연령해당자에게 개인및 단체 관광여행허용
	▲관광및 친지방문 여행자 예치금또는 적립금제도 마련
▲船員수첩으로 상륙이 인정되지않는 국가에 조업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하여는 여행증명서발급	▲船員수첩으로 상륙이 인정되지않거나 어려운국가에 조업하는 선박에 乘船하는 선원에 대하여는(就業목적) 일반여권 발급
<短數·複數>	
▲원칙적으로 모든 여권 單數。예외적으로 商用, 문화, 거주경우 복수인정	▲원칙적으로 모든여권 複數。예외적으로 방문, 관광, 학술短期硏修경우 단수
▲일시귀국및 入國신고제도있음	▲일시귀국및 入國신고제도폐지
<旅行國一括인정>	
▲商用 복수여권에만 일괄인정하고 기타여권에는 개별여행 국가明示	▲모든여권에 여행국 일괄인정 다만, 공산국에대한 여행制限國明示
▲여행목적 明記	▲여행목적 記入안함 다만, 移民여권의 경우 여행목적 明記
▲성명란에 漢字記載	▲한자기재 폐지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
	<具備書類>
▲대리인을 통한 신청시 본인 인감증명 제출	▲본인 印鑑證明書를 본인주민등록등본으로 갈음
▲개인納稅필증 제출	▲납세필증 제출면제 범위대폭확대
▲신원진술서 4매제출, 기재사항복잡	▲複寫紙이용, 진술서 1매제출효과 기재사항 간소화
▲同居여권 同時출국시 소속상사또는 관계기관추천요함	▲同居여권, 同時출국시 소속상사 또는 관계기관 추천불요
▲관계부처추천및 照回제도	▲원칙적으로 관계부처추천및 照回제도 폐지
▲부부동시여행시 서류중복제출	▲중복서류생략
<豫想문제점>	
▲일시귀국및 入國신고제(6개월허용, 예외적으로 3개월씩 2회만허용)	▲僞裝移民방지등 목적으로 거주여권소지자의 국내체제기간 1년으로 제한
▲허위사실기재등 부정행위경우 여권발급을 1년내지 3년간 제한	▲誓約위반자및허위사실기재와 기타 부정한행위를 여권발급또는 기재사항변경을 받은자에 대해 1년내지10년간여권발급제한

民法·商法등 年內개정

成長沮害 46개課題확정
戶籍·認許可制 정비

請託 배제 國稅基本通則 제정
品質 보장·敎員人事制 합리화
罰則制는 과태료中心으로운영
文化藝術 분산·5大圈을 육성

…務위원장인 金榮玉행정개혁위원장은 이날 『35개 각院部處廳과 민간단체, 학회, 기업인, 전문가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 개선과제로 9백건을 추려냈고 이중 46개항목을 주요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46개의 주요과제를 포함한 9백건의 개선과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 일부 과제를 제외하고 8월초까지 관계부처에서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9월국회에서 필요한 立法조치를 마칠계획』이라고 말했다.

…

"不可能이란 없다"

근면·정직등 우리民族 7大長點
全대통령、國威선양選手 격려

…

大入學力考査 11월24일

前期(1次) 1월22일、後期(1次) 2월12일

科別정원 未達돼도 成績不良은 不合格

前後期 2개大씩志願 1개大 應試
內申반영 30~50%

문교부는 24일 82학년도 대학입학학력고사일정과 모집요강및 고교성적 내신반영, 전문대, 교육대신입생 모집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문교부는 이요강에서 대학입학학력고사는 81학년도보다 4일늦은 11월24일에 실시, 그결과를 44일후인 82년 1월7일에 통지하고 일반대학(4년제)의 전기는 1차 전형을 82년1월22일, 2차 전형은 2월2일, 후기는 1차 전형을 2월12일, 2차전형을 2월22일에 각각 실시하도록했다.

문교부는 또 대입전형을 전·후기로 나누어 각 2개대학씩 지원에 1개대학만 응시토록 …

문교부는 이와함께 고교내신성적 등급을 10등급에서 15등급으로 세분하고 반영률은 대입총점의 30%이상 50%이하로 정했다.

★관련기사·도표10면

◇中共軍이 中共모처에서 탱크를 동원한기동훈련을 벌이고있다. 이사진은 新華社통신이 공개한것이다. 【北京23일UPI同和=聯合】

中南美볼리비아國 서울常駐公館개설

중남미의 볼리비아共和國은 지난21일字로 駐韓상주대사관을 개설키로 결정, 외무부에 통보해왔다고 외무부가 24일 밝혔다. …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멕시코, 파나마, 우루과이, 페루, 볼리비아등 11개국으로 늘어났다.

社會漫評

하시는일…어련하시겠읍니까요…

地平線

…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03
은 : 온스당 US 8.35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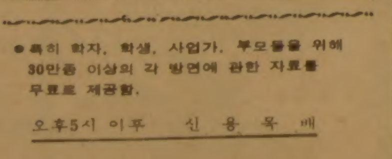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종합요리및 한식전문
718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서울한의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외 한의학발전공로로 표창장 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정구기·산후보약(왕진함)
주소 : 10 Blackfriar Ave. #216 Weston. Ont. (Kipling·Dixon)
한의사 김 장 석
☎ : 247－9347

토론토시
심코데이(월) 1981년8월3일 쓰레기 수거 변경일
수거일 (화) 8월4일, 1981
(수) 8월5일, 1981
신문지및 부피있는 물뭉은 8월5일(수)에는 수거치 않읍니다.
8월12일(수)까지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토론토에는 19군데의 병과 쇠붙이 등을 재생시키는 장소가 있읍니다. 더 이상의 사항을 아시고자 원하시는 분은 전화 367－7742로 문의 바랍니다.
R. M. BREMNER
P. Eng., F.I.C.E.
건설국장

BRITANNICA

NOW 30 VOLUMES!
BRITANICA 3
대형백과사전(전30권)
GREAT BOOKS
세계문학전집(전54권)
400달러 할인



●특히 학자, 학생, 사업가, 부모들을 위해 30만종 이상의 각 방면에 관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함.
오후5시 이후 신용목 배
●교인, 학교 각 단체회원에게 특별할인
●타 백과사전 소지자께 특별할인
●소년용, 아동용 백과사전도 있음
문의처 : 536－9082(B). 245－7522(R)

각종 부동산의 매매및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Commercial and Industrial Plaza Building.
● Apartment Building
● Hotel and Motel
● New Store Lease
오랜 경험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수익성 높은 투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김시성
(B)497－0600
(R)298－8558
D.F. McALLISTER
250 Consumers Road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밍크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영업시간
MON. TUES. WED. SAT. 9:30－6:00
THURS. FRI. 9:30－9:00
●신품 : $990이상 ●중고품 : $100이상
MRS. PARK
202 SPADINA AVE.
☎ : 363－6077

파키스탄, 곧核彈 보유

年內 中共基地서 實驗 계획

플루토늄 再生工場세워 年間3개정도 製造가능

【런던23日AP=聯】파키스탄은 올여름에 최초의 핵폭을 보유한 것이며 금년말까지는 중공에서 핵실험을 할수있을 것이라고 英國의 뉴·사이언티스트誌가 23일 보도했다.

◇레이건夫妻 작별키스 레이건美대통령이 23일 英國의 찰즈皇太子결혼식에 참석하기위해 英國으로 떠나는 부인 낸시여사와 키스를 하고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낸시여사를 전송하면서 4차례나 키스를 한뒤 「당신을 사랑해, 몸조심하구려」하고 당부. 【워싱턴24日UPI=聯】

美下院歲出委 내년 軍事건설支出法案

史上최고 69億弗승인

【워싱턴23日AP=聯】美하원세출위원회는 23일 사상최고인 69억달러의 82회계연도군사건설지출법안을 승인했으나 MX이동식미사일계획에 소요될 모든 예산은 MX미사일배치방법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보류시켰다.

"對이防衛公約준수"

레이건, 兩國특수관계 再確認

이 支持國 아랍聯 공동대처 경고

"팔攻擊 계속 強行"

이 緊急閣議 對美긴장문제도 협의

【예루살렘23日外=聯】베긴수상의 이스라엘정부는 23일 특별각의를 소집, 레바논내 팔레스타인게릴라들과의 전쟁사태대처방안을 협의했으나 이스라엘측은 레바논내팔레스타인세력에 대한 공격을 계속강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레바논 爆擊계속

이特攻隊 베이루트南部 기습

베긴의 賭博

中東戰 또 터질것인가

(中)

점령지 吸收강행

定着村등 건설 占領영구화 美와 아랍國 不和노리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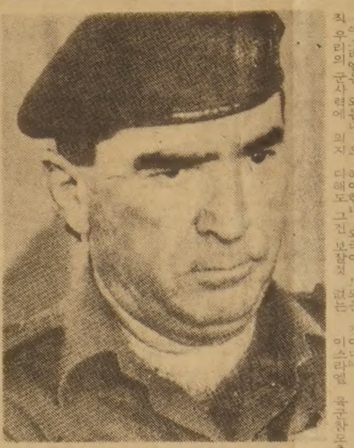
국내政治기반 強化위해 強硬일변도

◇베긴 이스라엘수상

【崔海雲기자】

軍事力만 믿는 「제2의 다얀」

라파엘·에이탄 이스라엘 陸參總長



◇라파엘·에이탄

對아랍 強硬…베긴 절대 信任

이라크 原電·레바논攻擊등 짜내

7살때부터 故鄕서 총쏘는법 배워

【텔아비브AP=聯】

메아리

對馬島 군사훈련

海外토픽

露宿금지등 4개항

★황태자결혼식 관람守則

中共 最長고속도로

名譽위한殺人 7年

★伊 오래된刑法條項폐지

美워싱턴스타紙 7일廢刊

經營難으로 1百29년만에

【워싱턴23日外=聯】

"共産主義에 강박관념 美서他國의 內政간섭"

英지식인들 레이건에 공개書翰

【런던24日外=聯】

레바논 事態개탄

佛閣議성명

【파리24日外=聯】

Century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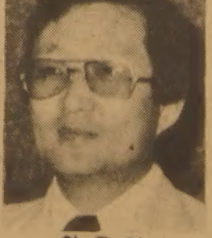
금주의 새리스팅

1. 건물+가게
— 주매상 $4100 가격 $129,500
— 주매상 $3700 가격 $125,000
— 주매상 $4000 가격 $139,000
— 주매상 $4000 가격 $189,000

2. 집
— 방갈로 독채 3 베드룸 물개지 양호 134,900
— 아파트 10채 달린집 229,000

3. 가 게
— 주매상 $3700 시간 오전9시~오후8시 주일 닫고 그로서리 없음.
쇼핑센터에 있는 기프트 샵등 다수 있음

4. 동양계 식당 일요일 닫으며, 이윤이 좋고 사정에 의해 급매코자 함.
적은 Down payment $15,000−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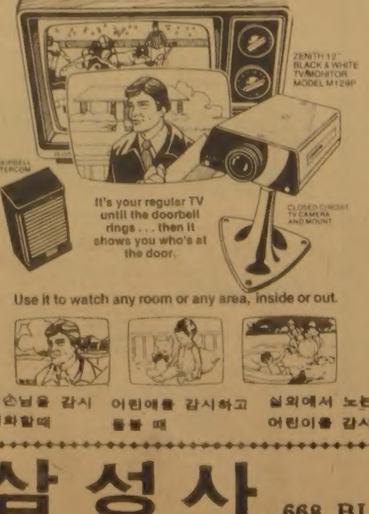


황웅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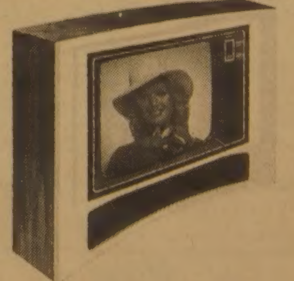
경영상담
투자상담
모기지알선

로차부동산 318 BATHURST ST
(B)361−0880 (R)286−1548

ZENITH VIDEO SENTINEL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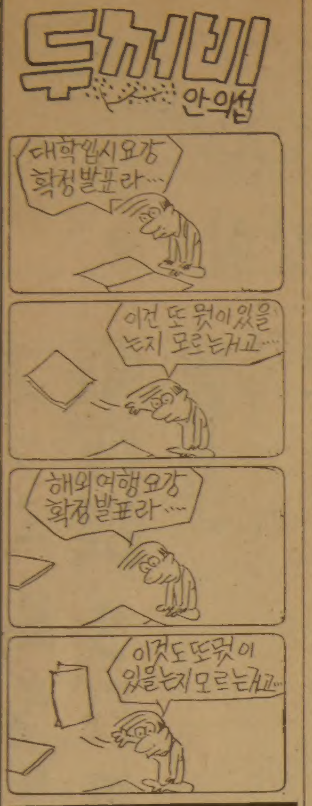


특별염가



취급 품목
TV, RADIO
STEREO
ZENITH, SANSUI
AKAI, TOSHIBA

삼성사 668 BLOOR ST. W. ☎: 533−4125



高校生이 본드幻覺 자살

얼굴에 바르고 비닐봉지 쓴채

동생이 教材用으로 문방구에서 사둔것

成績우수…「다시태어나면 白痴로」遺書

【大邱=聯】고교생이 본드를 이용, 자살한 충격적인 사건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23일 새벽4시께 大邱K고교2년 金종우군(16·大邱市南區大明8洞)이 자기집 공부방에서 본드를 코밑과 얼굴전체에 바르고 비닐봉지를 뒤집어쓴채 숨져있는것을 어머니 金모여인(46)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金여인에 따르면 金군이 전날저녁 자신에게 『새벽 공부를 올릴수 있도록 깨워드리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날새벽 4시가돼도 인기척이 없어 金군의 방문을 열어보니 코밑부분을 중심으로한 얼굴전체에 본드를 칠해 바르고 엎드린채 숨져있었다는 것.

숨진 金군은 평소 학교성적이 우수한데다 학급간부까지 지내는등 모범생이었으나 말이없고 내성적이며 성격이 예민한 편이었는데 이날 자신의 노트에 『세상을 살기싫다. 다시 태어난다면 백치로 태어나고 싶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金군이 사용한 본드는 국민학교에 다니는 동생이 미술교재용으로 사둔것으로 한번도 쓰지않은 신품이었으며 시중문방구에서 흔히 구할수 있는 제품이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이 최초의 본드자살임을 중시, 金군의 시체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로 하는 한편 金군이 평소 본드를 환각제로 이용해 왔는지의 여부와 치사수단으로 본드를 사용케된 경위를 아울러 수사키로했다.

馬羅島근해 怪魚출현

길이10m 海女들 작업중단

【濟州=聯】식인상어 공포가 가시기도 전에 우리나라 최남단인 南濟州郡大靜邑馬羅島와 加波島 사이 바다에 정체를 알수없는 큰 바닷고기가 잇달아 나타나 3백여명의 해녀들이 작업을 중단하고 있다.

지난 10일 하오1시께 처음보는 이 괴어가 바다에 나타나 날개모양의 큰 지느러미를 반쯤 물위로 내밀고 맴돌다 사라졌는데 지난 14일 상오에는 이 바다에서 작업을하던 강남희양(17·加波島里)등 해녀 3명이 이 괴어를발견, 급히 피신했고 16일에도 어부 이대근씨(35)가 이 고기를 목격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대어는 지느러미가 크고 배부분이 흰색인데 길이는 10m쯤 되는 괴어라는것.

이 괴어출현으로 이곳 해녀들은 피해가두려워 15일이후 작업을 중단, 괴어의 정체를 확인해 줄것을 郡수산당국에 진정했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有父島가 가라앉는다

群山外港 방파제工事로 물길바뀌어

충남舒川郡長項邑에서 7㎞떨어진 有父島가 바닷물속으로 가라앉고있다.

16가구 80여명이 살고있는 이 섬주위의 물길이 수년전부터 바뀌는바람에 해변이조금씩 침식되고있다는것.

有父島주민 白鍾在씨(50)등에 따르면 지난71년 섬바로 건너편에서 시작한 群山외항 방파제호안공사이후 75년부터 바닷물길이 바뀌면서 섬서쪽에 바닷물이 크게 밀어닥쳐 7백50m쯤의 해변이 1백50m가량이나 유실됐는데 유실된 해안은 섬전체면적의 20%정도에이른다는것.

게다가 지난해 10월 이섬을 강타한 해일로 5백여m의 방파제마저 무너진채방치돼 해안의 침식속도가 빨라지고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침식으로 有父島서해안에서 1백여m 떨어진 長項松林국민학교 有父분교 뒤편까지 바닷물이 밀려와 건물의 축대까지 침식되고있어 학교건물의 붕괴위험이 높아가고있다.

有父島주민들은 침식돼가고 있는 섬을 보호하기위해 『완벽한 서해안방파제공사가 시급하다』면서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호소했다.

有父島는 총면적이 50·9ha이고 주민들은 염전·고기잡이등으로 생계를 잇고 있으며 학생11명의 국민학교분교가 유일한 공공기관이다. 【長項=聯】

위험한 都市웅덩이 「풀場」

◇내수(內水)에서 익사하는 사람이 전체 익사자의 98%라는 우리나라 실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꼬마들이 강가 웅덩이에서 위험스러운 물장난에 여념이 없다. 【서울佛光洞舊基터널뒤에서】

海外登攀사고

무리한 挑戰이 문제다

지난10년사이 12번째 희생자 내

완전裝備·철저한訓鍊아쉽고 성급한 出征이 禍 불러

또 한사람의 산사나이가 히말라야 깊은계곡에서 「젊음」을 닫았다. 71년 마나슬루에서 金棋燮씨가 추락사한 이후 우리나라 산악인들이 겪는 12번째의 희생이며 슬픔이다. 물론 지구의 지붕인 巨峰에 도전하는 것인만큼 조난원인이 불가항력 일수도있다. 그러나 피할수있는 사고를 예방하지못한게 아닐까. 사고 예방의 지름길인 완벽한준비와 철저한 훈련을 전제로 원정대는 도전길에 나서고 했을까. 카라코람원정대 李廷大대원(28)의 불의의비보는 이런의구심과함께 산악인들에게 『무리한 도전은 삼가야한다』는 자성의 계기를 새삼마련해 주었다. 이제 「해외등반 참사」는 산악인 개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슬픈소식이 전해질때마다 전체국민들은 한국인의 기개와 의지를 살리려다 산화한 그들 젊은넋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메어지는 것이다.

산악인들은 해외원정등반이 붐을 이룬뒤부터 일부등반대가 무리하게 도전하는경우가 많다고 자인한다. 해외원정등반은 국내등반과는 달리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충분한 현대장비와 장기간의 훈련을 요하는 고도의 등반기술, 현지적응훈련, 사전정찰등이 앙상블을 이루어야하는게 정석인데 이같은 필수요건들을 채 갖추지못하고 성급하게 출정하는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졸속등정이 희생을 불가피하게하는것은 어쩔수없는일.

올해에만 모두 28개원정대가 해외등정을 계획, 10개원정대가 이미 등정을 마쳤고 16개원정대가 준비중이며 2개원정대는 해외에 체류중이어서 다소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해외원정등반의 대부분이 재원조달이여의치못해 일정에 차질을빚고 장비를 제때에 구입하지못하는등 애로에 부닥치고있고 해외원정에 앞선훈련등반이 고작해야 雪嶽山(해발1천7백5m)이나 智異山(해발1천9백15m)에서 합숙훈련을 하는데 그치는현실이어서 6~7천m의 고봉에부닥쳤을때 당황할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고산의 기상급변에대한 훈련은커녕 빙벽, 낙뢰, 눈사태등에대비한 예비지식과 대처경험등이 모자란다는것.

이러한 기본적인 핸디캡말고도 원정대구성때부터 인선과정에서 정실이 개입되는경우도있고 정상등정권을 놓고 심한 감정대립까지 보인예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기때문에 희생없이 등정에 성공하려면 사전에 치밀한계획을 세워야하고 충분한 자금, 대원의 자질, 장비, 훈련관계등을 완벽히 준비해야 성공률이 높다는것이 국제적인 통론이라는것.

전문가들은 재원과 사전정찰부족으로 계획의 차질을빚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번 카라코람 등반의 경우라고지적한다.

이등반을 마련한 岳友會는 당초 5월3일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재원을 마련치못해 예정보다 늦은 지난5월31일 출국했는데 이때문에 최종등정기간보다 15~20일이 지연됐다.

사고가난 카라코람지역은 계곡쪽과는 달리 몬순기후의 영향을 적게받아 프리몬순(3~5월), 포스트몬순(9~11월)등 등반기간에 큰 제약은 없으나 대원들이 출국예정보다 지연되는 바람에 심리적 초조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것.

또 숨진 李대원은 이번이 첫해외원정등반이었는데 정상공격조로 선발된것도 문제라고말하는이도있다.

주요 해외원정사고중 갑작스런 눈사태등 기상이변에 대처하지 못해 희생된 경우가 많은데 72년4월10일 마나슬루峰에서 희생된 金皓燮대장및 77년7월23일 알프스 페테리峰에서 숨진 柳在源씨등이 이같은 케이스.

지난8일 아이거북벽 정찰등반중에 희생된 대한산악연맹 中建落대장등 2명은 폭설·낙뢰로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대한산악연맹 權孝燮회장(56)은 해외원정등반 사고때마다 『젊은이들을 그렇게 위험한 산에보내 죽이느냐는 항변을 자주받는다』면서 『그같은항변은 한국등산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극복해야할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나 日本의경우 전문적인 국립등산학교가 있어 알피니스트들의 훈련및해외원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9년전부터 한국등산학교가 세워져 계절에 따라 알맞은 암벽등반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외국과 같이 폭넓은 활동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任皓淳기자】

◇李廷大대원의 떠날때모습. 李대원은 지난5월3일 金浦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꼭성공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었다.

登頂실패 氷壁매달려 탈진 동료살리려 자일끊고 墜落

바인타브락峰서 「殺身」한 李廷大대원

파키스탄 동북부 카라코람히말라야산맥의 바인타브락峰(해발6천9백60m)에 도전한 한국岳友會 카라코람원정대(대장 沈益燮·41)의 李廷大대원(28)이 정상을 50m앞두고 등정에 실패, 하산하다 추락, 숨졌다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주재한국총영사관(총영사 李源浩)이 23일 외무부에 보고해왔다.

보고에 의하면 李대원은 등반대장 柳漢圭대원(25)과 함께 1차정상공격조로 선발돼 15일 하오1시30분(한국시간15일 하오5시30분·이하현지시간)부터 9시간의 공격끝에 해발6천9백10m의 정상선에 이르렀으나 정상50m아래의 지점을 오르지못하고 등정을포기, 하산하다 해발6천3백m의 빙벽에서 추락했다.

李대원은 동료柳대원과함께 빙벽을 더듬어 내려오다 실족, 柳대원과 연결된 15m길이의 자일에 매달리게 되자 허기와 추위, 어둠속에서 더이상의 사투가 허사임을 깨닫은데다 고산병·동상증세까지 겹쳐 스스로 자일을 풀고 추락함으로써 빙벽위에서 자기를 떨어지지않도록 도와주고 있던 柳대원을 살린것으로 보인다고 원정대가 조사결과를 알려왔다.

총영사관은 사고내용이 발생 7일만인 23일에야 접수되었다고 밝히고 柳대원을 비롯한 나머지 8명의 대원은 모두 무사하며 李대원의 시체를 수습하는대로 이슬라마바드로 돌아올것이라고 전했다.

"돌아오면 장가보내려했는데…" 가족들哀痛

現地외국인들 한국山岳人 숭고한 精神찬양

한편 李대원이 동료대원을 구하고 자신은 숨졌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현지외국산악인들은 『李대원의 용단이 아니었더라면 두사람 모두 추락했을것』이라며 그의 숭고한 산악인정신을 찬양했다.

숨진 李廷大대원은 경남金海가 고향으로 李龍植씨(61)의 3남1녀중차남으로 77년東國大수학과를 졸업, 富川소명여고에서 교편을잡다 이번 등반에 참가하기위해 지난4월 학교를사직, 큰형 李廷旭씨(33·서울道谷洞진달래아파트2동1204호)집에 살면서 등반훈련을 받았었다.

別味「가지탕수」를

생활메모

요즈음시장에 가지가 많이 쏟아져나오고있다. 값도 싸서 세개를 1백원정도에 살수있다. 가지는 흔히 무쳐서 먹었지만, 최근 새로 개발된 「가지탕수」를만들어 먹는 주부들이늘고있다. 가지탕수는 단백질과 지방영양이 높고 맛이 색좋아 여름별미로 꼽힌다.

▲재료=가지 3개, 고기(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중에서 선택)간것 1백50g, ▲녹말가루 3분의1, 밀가루 반컵, 풋고추20개, 토마토 케첩큰술7, 설탕 큰술2, 식초 큰술1 소금 약간, 달걀1개

▲만들기=①다진 고기에 달걀을 깨서 풀어놓는다. 소금, 후추, 조미료등을 고기에 넣어 고기가 끈기가 생길때까지 잘 섞는다. ②가지는약 1㎝의 두께로 길게썰고, 가지선을 만들듯 뒤 가지의 중간에 얇게 잘 칼집을내고 그 저민속에 고기를 집어 넣어 잘 아물린다. ③녹말가루와 밀가루를 섞어 물을붓고 반죽한다. 가지에 반죽을 묻혀서 통기름에 튀겨낸다. ④풋고추를 2등분해서 씨를털어내고 프라이·팬에 통기름을 두르고 볶다가 물, 토마토·케첩, 소금, 설탕, 식초등을 넣어 끓이다가 이미 튀겨놓은가지를 다시 여기에넣어 골고루 섞고 접시에 담아 내놓는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모눈종이 위의 生 <157>

趙善作 作
禹慶熙 畵

그림자놀이 ⑥⑥

잠들기 전까지 나는 잠든 그를 상대로 몇 가지 실험을 해보았다. 잠결에라도 나는 그가 나를 안기를 원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면 그의 깊은 잠을 얼마쯤은 깨워놓아야만 했던 것이다. 물론 그것은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던 일은 아니었다. 잠결에라도 그가 나를 안기를 바란 희망 따위도 전혀 우발적으로 발생한 감정이었고, 때문에 뒤에 일어난 일들은 어디까지나 유희(遊戲)의 성질을 띤 것이었다. 몇 차례의 가수상태(假睡狀態)끝에 반짝 잠에서 깬 내가 다시 잠들기까지는 퍽 지리한 시간을 견뎌야만 했고, 요컨대 나는 그런 지리한 시간과의 싸움으로 잠든 그에게 도전한 것이다. 옆에 나체의 여자를 뉘워 놓고도 태연히 잠만 자고있는 그가 나는 조금쯤 얄미운 느낌이기도 했다.

이런 느낌이야 지금까지의 험난했던 도정(途程)에 비기면 사치스런 감정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비밀히도 모하던 일을 마침내 이룬 여자의 미소는 그보다 더 큰 사치도 결코 놓치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처음에 나는 그의 한쪽 손을 찾아쥐는 일부터 시작했다. 체구에 비해서 그는 아주 작은 손을 가지고있었다. 나는 그의 손등을 덮어쥐어 내 가슴앞으로 옮겨와서 마치 완구처럼 한참동안 그것을 가지고 놀았다. 손가락사이에 내 손가락을 넣어 깍지를 끼기도하고, 주먹을 쥐게 하여 내 두 손으로 공처럼 싸쥐기도 했으며, 손바닥을 펼쳐 똑같은 모양으로 내손바닥을 밀착시키기도 했다. 손가락의 마디를 꺾어 소리를 내려고 했을때 그는 아팠는지 움찔했다. 그뿐 손으로는 그의 깊은 잠을 덧들리게 할수가 없었다. 다음에 나는 그의 등에 손가락으로 무의미한 그림을 그렸다. 원과 직선, 또는 곡선따위로 나는 그의 등을 무수히 나누었다. 그때마다 그는 조금씩 움직였고, 마침내는 내쪽으로 몸을 돌려누웠다. 몸을 돌려눕는 동안 그가 잠에서 깨어 버리는게 아닌가 싶어 나는 아슬아슬한 느낌으로 벽쪽에 붙어있었다. 그러나 그는 깨어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마주보고 누운자세가 되었다. 그의 입에서 나는 발효한 알콜냄새가 곧장 내 코로 전해졌지만 이제는 그다지 고약한 느낌도 아니었다. 잠깐 사이를 두었다가 나는 밑에 깔린 그의 무거운 팔을 빼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치 거부라도 하듯 그의 가슴 밑에 짓눌려있던 팔이 내 노력에 체념이라도 한 것처럼 풀려 나왔고, 나는 그것을 그의 어깨 근처에 그의 몸과 직각이 되도록 놓았다. 베개를 만든 것이었다. 헤쳐진 머리를 뒤로 젖히며 나는 그의 왼쪽 팔로 만든 베개를 베었다. 그런 다음 나는 또 한참 있다가 그의 다른 한쪽 팔을 끌어당겨 내 등 뒤로 보냈다. 그러자 나는 마치 갓난아기처럼 그의 가슴에 파고들어 잠든 모양이 되었다. 마침내 나는 그에게 안긴 모양을 이룬 셈이었는데, 그것은 그의 자발적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타율(他律)에 의한 것이었다. 그의 가슴에 안겨서도 나는 결코 만족스런 느낌이 아니었다. 자그마하게 나는 한숨까지 내쉬었다.

그때 그가 내 머리에 받친 팔을 움찔거리더니 불평어린 투로 중얼거렸다.

『언제 왔어? 아이는?』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말이 아니었고, 조금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런말이 아니었을까하고 내가 추측해낸 것에 불과했다. 그만큼 그가 중얼거린 말은 불투명했으며 요령부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대로 나는 그의 깊은 잠을 얼마쯤 깨워놓아야 한다는 처음의 생각을 실천한 셈이었다.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택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선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 (at Gerrard)
TORONTO, ONT.
TEL :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 363-0684
영업시간 ●
●월-토 9 : 30AM - 6 : 00PM
●월-토 11AM - 7PM

참 행복을 원하십니까?
생명의 말씀
CITY.T.V.
CHANNEL 79
CABLE 7
SUNDAY
AM 9:30-10:00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 B) 535-2143 R) 656-3446
대표 이 정 석

NIPPON VIDEO CENTRE
1993 Danforth Ave.
Toronto, Ont.
Tel. 698-0633
TOSH HAMAGUCHI
(하마구찌)
일본비데오센터
BETA, VHS두종류
※일본, 한국 테이프 준비됐읍니다
두종류의 테이프가 있읍니다.
●비데오테이프레코더의 판매
●비데오테이프대출(빌려줌)
월, 수, 토 : 오전10시~오후6시
목, 금 오전10~8시 회원모집(특별할인)
화요일은 문 닫습니다. 우드바인서쪽 1 block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CLOVERDALE MALL
250 The East Mall, Suit 157
Islington, Ont. M9B 3Y8
(B)233-6236, (R)745-8236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식 중국음식 · 뱅킷, 파티에 맞아서 원하는 대로 베이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Spadina코너)
☎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 · 악기수리 · 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SUREKILLER
바퀴벌레, 개미, 벼룩, 좀벌레등 각종벌레.
Powder or Spray적은비용, 사용간편, 사전예방용, 100% 효과보장.
각 한국식품 판매처 또도 Ont. 전역 공급 Retail store경영하시는분 주문 배수.
☎ : 255-6849, 255-0713

나의 이력서

윤치영 ③

〈필자·윤 치 영〉

나의 父母님

독립협회의 민중운동이 한창 전개될무렵인 1898년 2월10일 나는 서울典洞 (지금의 堅志洞) 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尹英烈과 淸州韓氏인 어머니사이의 6남2녀중 막내아들이었다. 음력으로는 戊戌正月 20일생. 高宗황제등극35년되던 해 光武2년이었다.

나를 나으실때 아버지는 45세, 어머니는 48세였다. 老産인셈으로 맏형(致旿)과 나와는 29살차이였다. 이 때문에 남들한테서「한배」(腹)가 아니지않느냐는 농담도많이 들었다.

아버지가 江界府使를 지내고 서울에 돌아왔을 때 나를 낳았다고한다. 처음엔 典洞서 伯父 (尹雄烈)와 함께 살다 인근인 지금의 安國洞104번지로 이사했다.

아버지는 지모와 용맹을 겸비하신 분이었다. 어릴 적엔 주위에서 아버지가「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의 文武를 달통한 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어린 나에게 武士정신을 늘 강조하신 걸로 기억된다.

대한제국의 國運을 위해서는 무사정신을 길러야한다는 말씀을 그때 들었다.

아버지는 그러면서도 퍽 자상하신데가 있었다.

어머니는 聰明하고 조리있는 분이었다. 엄격한 구식예절의 가문에서 커오신 탓으로 예의범절이 남달랐다. 예절을 엄하게 강조하신 어머니는 그런 반면 일찍부터 기독교 신자였다. 어머니는 어린 나를데리고 기도하고 성경공부도 시켰다.

江界府使職 마치고 歸京한해 晩得
어머니 48세때 6男2女의 막내로

◇回婚式때의 부모님. 武官출신인 아버님은 正二品武官服을, 어머님은 正夫人옷을 입었다.

韓末에 慶尙, 全羅감사를 지내고 내부차관을 2번 역임한 韓鎭實이 나의 외숙이다.

어린시절아버지로부터는한문을배우면서 동양의 文物을 터득하고 어머니로부터는 성경공부를 통해 서양지식에 눈을떴다. 지금 생각하면 「東·西洋의 만남」이었다.

나는 초기유년시절을 安城에서보냈다. 아버지가 安城군수겸 三南討捕使로 부임하셨기 때문이다. 당시 朴泳孝내무대신이 동학란의 여파를 틈타고 횡행하는 강도와 도둑떼를 막으라고 아버지에게 그런 직책을 맡겼다는 것이다. 특히 安城과 인근 稷山금광일대에 도둑이 들끓었다는 것이다. 당시 아버지는 관직에 나아갈 뜻이 없었으나 내무대신의 特命을 거역할수없어 총과 피복을 받아 安城으로 내려갔다고한다.

당시 아버지가 군청마당에서 병사들에게 陣法을 가르치고 軍歌를 시키면서 교련하던 것을 앉아서 구경하던 일이 엊그제일처럼 생생하다. 상엄한 분위기를 보고 어린 마음에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했다. 자랑같지만 난 기억력이 좋았던 것같다. 安城에서 첫돌을맞아 돌잔치를하던 기억이 지금도 난다.

그러나 祖父母님의 얼굴은 전혀 기억못한다. 조부는 1798년생이고 나는 1898년생이니 꼭 1백년차이다. 조부는 18세기에 태어났고 나는 19세기에 태어났다. 내가 낳기35년전에 돌아가셨으니 우리형제들 아무도 조부의 얼굴을 뵌적이없다.

부친은 江界府使, 安城郡守이외에 防禦使, 延安府使, 陸軍參將을 지내시고 正二品에 올랐다. 부친은 金冠朝服보다는 武官正服을 좋아하셨다. 回婚式때 부친은 武官服에 칼을차고 모친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우리어머니는 나를 낳으실때 胎夢이 좋았다는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나의 형들에게「너희 동생은 앞날 훌륭한 인물이될것이다」라는말씀을 하셨다고한다.

그런 어머니께서는 해방되기7년전에 88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다. 어머님이 가신뒤 3년후 아버님도돌아가셨다. 비록 두분께서 壽를누리셨다고는 하지만 광복을 보지 못하고 他界하신 것이 오래도록 가슴에 못이 되었다.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서울典洞의 從兄(尹致昊)집과 校洞의 伯兄(致旿)집은 개화의 바람을 일으키던 곳이었다.

그당시 드나들던 인물들로는 兪吉濬, 朴泳孝, 金佐鎭, 李承晩, 安昌浩, 金奎植, 李商在, 金允植, 李儁, 李甲, 李東輝, 徐載弼, 柳東悅, 金一醇등 개화사상가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중에서도 從兄집엔 서구적사상파 기독교문화전파의 선도적역할을한 李商在, 金奎植같은 志士들이자주모였고 伯兄집에는 徐光範, 朴泳孝, 洪英植등과 같은 개화사상가들이 많이 내왕했다. 그들 개화사상가 志士들은 一世의 선각자들이었으나 그뒤 日帝의 압력기를 받아 亡國의 통한을 품고 망명도 하고 좌절도하고 고초를 당하며 흩어져갔다.

한국, 中共에 설욕…準決 진출

남자排球 移動速攻 위력발휘 3—1

夏季 유니버시아드

【부쿠레슈티=特派員】 한국남자배구가 中共을 꺾고 81년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준결승리그 진출권을 따냈다. 한국은 23일 밤 10시반 (이하한국시간) 이곳 디나모체육관에서 벌어진 남자배구 예선B조 마지막경기서 中共과 2시간30분간에 걸친 접전끝에 3—1로 승리, 3연승으로 8강이겨루는 준결리그에 합류했다. 한국이 中共을 이긴것은 지난78년 아시안게임이래 3년만이며, 금년3월 월드컵예선(홍콩) 때의 3—2패배를 4개월만에 설욕한 것이다. 한국은 이로써 中共과의 역대통산 전적에서 8승6패로 여전히 우세를 지키고있다.

方大斗 레슬링서 첫 銅메달
張在根 2百m서 豫選통과
男女테니스 入賞기대 무너져

◇方大斗 선전 方大斗선수(左)가23일 부쿠레슈티에서 벌어진 유니버시아드대회 5일째 레슬링 그레꼬로망형 52kg급 준결승에서 루마니아의 징가니우선수와 맞붙고있는 모습。方선수가 패했다。【부쿠레슈티 (루마니아) 23日AP電送=聯合】

이번 양팀의 멤버는 사실상 한국과 中共의 국가대표팀이다. 또한 레슬링 그레꼬로망 52kg급에 출전한 方大斗는 23일밤 벌어진 3、4위전에서 日本의 미야하라를 12—7로 누르고 3위에 입상, 한국팀최초의 메달을 따냈다.

한국레슬링은 이번대회 그레꼬로망형에는 方大斗 혼자 출전했었으며 25일부터는 孫甲道등 5명이 자유형경기에 출전하게 된다.

또한 이날 육상2백m에선에 출전한 張在根도 예선관문을 통과, 25일 24명이 겨루는 준결승에 나간다. 준결승 진출자격은 6개예선조의 각 3위이상에게만 주어지게 되었는데 張은 예선5조에서 21초17로 4위를 기록했으나 탈락선수중 순위가 6위 이내에 해당돼 준결에 진출했다.

그러나 이날 한국은 펜싱플러레단체전에서 완전히 탈락했으며 테니스도 전멸하는비운을 맛보았다. 펜싱 플러레단체전예선4조에 속했던 한국은 美國에 9—7로 이기고 폴란드에 9—3으로 패배, 3팀 동률을 이뤘으나 승률차로 탈락했다.

테니스 여자단식 3회전에 나간 申順浩는 中共의 유·리오·키아오에 2—0으로, 金壽玉은 美國의 헨리·켈리에 2—1로 패해 입상기대가 무산되었으며 남자복식 1회전서도 金英大·田昌大조가 보리소프·레오니크조에 2—0으로 져 역시 탈락했다. 이 밖에도 남자단식 3회전에 진출한 이우통은 루마니아의 비르즈에 2—1로, 金春浩도 루마니아의 홀로린에 2—0으로 각각 패해 탈락했다.

◇제5일전적

▲레슬링B조3、4위전 (그레꼬로망52kg급)
方大斗 판정 미야하라 (3위입상)

▲동준결승
징가니루 판정 方大斗 (루마니아)

▲남자배구예선B조
한국 3 (15—11 4—15 19—17 15—10) 1 중공 (준결승리그진출)

▲육상2백m예선5조=④張在根21초17(준결승진출)

▲테니스 여자단식3회전
유·리오·키아오 2 (6—3 6—3) 0 申順浩 (중공) (탈락)
헨리·켈리 2 (6—2 6—2 4—6) 1 金壽玉 (미국) (탈락)

▲동남자복식1회전
보리소프·레오니크 2 (7—5 7—5) 0 金英大·田昌大 (소련) (탈락)

▲동남자단식3회전
비르즈 2 (8—6 6—0 1—6) 1 이우통 (루마니아) (탈락)
홀로린 2 (6—3 7—6) 0 金春浩 (루마니아) (탈락)

▲펜싱남자단체예선 (플러레)
한국 9—7 미국
미국 9—7 폴란드
폴란드 9—3 한국 (탈락)

레슬링 銅메달리스트 方大斗
텃세判定에 決勝진출막혀

◇方大斗선수

유니버시아드대회 레슬링 그레꼬로망형에 유일한 韓國선수로 출전한 方大斗(27)가 銅메달을 땄다. 方이 따낸 이메달은 이대회서 韓國이 차지한첫메달。

노장方은 23일 결승진출을가리는 對 징가니루(루마니아)전에서 우세한경기를 펼치고도 심판의편파적인 판정으로 3—3으로 비기고 선취점 우선원칙에 따라 결승진출권을 징가니루에게 내주어야했다.

74년 테헤란 아시아경기대회서 銅메달, 77년 불가리아 유니버시아드에서 4위를 차지했던 方은 慶北慶山출신。68년 [illegible]에 입학하면서 레슬링을시작、71년 [illegible]에는 국내플라이급1위자로 부상했다。

方은 유도하교 3년재학생이면서 조폐공사에 소속돼있다。79년 조성옥씨와 결혼、2살난 딸하나를 슬하에두고있다。

이번 方과 결승진출권을 놓고 대결한 징가니루는 몬트리올 올림픽 銀메달리스트. 징가니루는 77년 불가리아 유니버시아드에서 그리고 79년 샌디에이고 세계선수권대회서, 4—3으로 方을 이긴적이있다。

배구 對中共戰 승인分析
身長 劣勢극복 놀라운精神力 보여

한국이 이번 對中共전서 보인 공격형태중 가장 관심을 끈것은 이동 속공이었다. 세터 金浩哲이 네트와 평행선으로 볼을 빠르게밀면 역시 세트와 평행으로위치한 공격수들이 번갈아 상대코트로 스파이크해댔다. 공격은주로 A퀵크내지는B퀵크등속공으로 엮어지기때문에 오픈공격대처럼 상대블로킹이 달라붙는것을 피할수있어 거의노블로킹상태에서 공격이 이루어지므로 득점력이 상당히 높았다. 이런 이동속공은 네트와 평행을 유지하면서도빠르고 질이좋은 토스가 선결조건이다. 보통 이같은 수평토스(혹은 직선토스)는 키가 1백90cm가 넘는 장신 세터들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1m74cm의 金浩哲이 단신의 핸디캡을 높은 점프로 커버했기에 가능했다.

한국대표팀은 이같은 공격을평소 연습때는 사용해왔으나 실전에서 특히 높은득점력을 낼수있게한 것은 이번 中共전서가 처음이다.

이번 대회서 金炯泰의 한약도 기대이상의 것이었다. 186cm로 공격수가운데 최단신인 金은 좋은 무릎탄력을 1백%이용, 지금까지 한자리가 비어있던 레프트를충분히 커버해주었다. 京畿大재학중 軍에 입대했기때문에 어느선수보다 연습시간이 짧았음에도 金이 이처럼 활약할수 있었던것도 철저한 개인연습덕택이었다는것. 대표팀의 에이스스파이커로 불리는 張允昌도 개인연습을 많이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張의 왼손강타와 백어택등은가히 경지에 도달했을정도다.

中共의 주전 평균신장은 190·5cm, 평균연령은 26.2세이며 한국은 2·2cm가 모자라고 나이도 3세가량이 어렸다.

신장의 열세와 나이가 어린탓으로 국제경기 경험부족등의 핸디캡을 가진 한국이 中共을 제압할수 있었다는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기적은 노력과 정신력으로 이룰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釜】

한국일보 무료배부
—우편파업기간중

美연수 大學生 英語교육 돌입

【로스앤젤레스24日=聯合】 여름방학을 이용 美國에서 직접 산 영어를 배우기위해 지난20일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韓國대학생 영어연수단제1진 1백23명은 오는27일부터 본격적 영어연수에 들어간다.

연수단은 명문인 캘리포니아大學 버클리및 로스엔젤레스에 入校, 美國人들과 함께 생활하며 영어교육을 받게되는데 하루평균 5시간씩 총 65시간의 생활영어를 이수하게 된다.

韓國火藥그룹 金鍾喜회장 別世

◇故金鍾喜회장

한국화약그룹회장 金鍾喜씨가 23일 하오9시 서울鍾路區嘉會洞1의11、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58세. 金회장은 최근 지병인 당뇨병이 악화, 그동안 자택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金회장은 충남 天原郡稷山面上德里태생으로 일본明治大商科2년을 수료, 화약업계에 투신했다. 金회장은 52년 韓國火藥을 설립한뒤 한국베아링, 골든벨상사, 대일유업、제일증권、京仁에너지、第一화재、太平洋건설등모두 18개 계열기업을 韓國火藥그룹으로 이끌어왔다.

金회장은 육영사업에도 착수, 지난75년 天安北一학원을 설립했으며 지난67년부터 주한 그리스 명예총영사를 맡아 그리스 금성십자훈장을 받는등 외교면에서도 공로가 컸다. 또67년부터 全經聯이사를 역임했고 77년부터는 전경련부회장으로 재직해 왔다.

유족으로는 미망인姜泰泳여사와 장남昇淵씨(韓國火藥그룹부회장)등 2남1녀. 장례식은 27일 상오8시 대한성공회 대성당에서 회사장으로 거행되며 장지는 충남公州郡正安面선영.

流星의 賊 〈140〉

亡兆의 日月 ㉖

李炳注 作 / 李友範 畵

김귀영은 또

『영상께선 이이를 말할 때 꼭 숙헌(叔獻)이라고 하는데, 숙헌은 이이의 자(字)인즉 영상으로서 전하 앞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은 망발입니다』

하고 박순을 공격했다. 임금은

『사람의 이름을 자(字)로 불렀대서 뭣이나쁜가』

하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이래저래 임금은 귀영이 못마땅했던 모양으로 이윽고 다음과 같은 전교가 있었다.

『나라의 안위는 대신(大臣)에게 달린 것이다. 그런데 좌상 김귀영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이쪽 저쪽으로 아첨하는 태도를 취하니 곤란하지 않은가. 만일 무엇이 어질고, 무엇이 간사하다는 것을 모른다면, 이는 지혜의 부족이며, 알고서도 바른대로 아뢰지 않는다면 이는 충성이 아니니, 어찌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정승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가』

승지 박근원(承旨 朴謹元)이 아뢰었다.

『김귀영은 이이를 미워하는 사림(士林)들이 사심(邪心)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로 인해서 그들이 난처한 처지가 되지 않을까 하여 마음을 쓴 것이온데, 그 말이 명쾌하진못할망정 그 본의는 알 수가 있옵니다. 근자에 전하의 위엄이 두려워 사류(士類)는 외로움과 위태로움을 느끼고 있옵니다. 귀영이 만일 아첨하여 자기의 처신만을 좋게 하려한다면, 전하의 의사만을 받들기에 겨를이 없을것이온즉, 어찌 외롭고 위태로운 사류들을 두둔하려 하겠옵니까』

『나는 옳고 그름을 알고자 할 뿐이니라』

임금은 소리를 높여 말했다.

박근원이 부복하여 말을 계속했다.

『전하께선 평소에 대신을 중히 여기고 있지 않사옵니까. 그런데 한마디 말이 전하의 뜻을 거슬렸다하여 엄한 꾸지람이 이에 이른다면 나라의 일이 장차 어떻게 되겠옵니까. 성혼의 상소엔 사실 지나친 대목이 허다하옵니다. 대간들이 「협원(挾怨)하였다」고 하고 「편당지어 참소하여 교묘하게 중상하려 한다」고도 하고 「공교하게 수단을 부려 현란시킨다」고까지 하여 말하는 자들에게 기어이 죄를 주어야겠다고 하여 온 조정을 사특한 것으로 지목하고 드디어는 조정을 텅텅 비게하는 화가 불일 발생하게 되었옵니다. 한마디 말이 나라를 망친다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그러한 사례이옵니다』

임금은 가까스로 노기를 참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뢴 사연을 들으니 가위(可謂) 동문서답(東問西答)이라고 하겠구나. 좌상의 심정은 내가 잘 알고 있다. 대저 시비(是非)의 판단은 사람의 양지(良知)에 비롯되고, 천성에 근원하는 것인데 대신으로서 그것을 모른다고하니 슬프다. 임금이 정승을 두는데 다만 부지(不知)로서 종사하려는 정승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을까 말이다. 아아, 어두운 임금이 「부지」의 정승을 만났으니 이것은 판수가 장님의 눈을 빌어 천하의 색채(色彩)를 판별하는 것과 같으니 이대로 나가다간 서로 끌고 엎어지고 하여 장차 죽게될것이 뻔하다…』

고포특별우대… 이 쿠폰과 함께 20%할인 …남자용각종의류 및 악세사리 미스터오 FOR MEN

TIE CITY
Square One
275-2187
Hwy 10
Burnhamthorpe

Mister O
Cumberland Centre
2 Bloor St. W.
964-2606
Yonge
Bloor St

Mister O
Commerce Court Centre
869-0589
Bay
Yonge
King St

아 세 아 선 물 센 타

SUMMER GRAND SALE (기간 : 81년7월15일~8월31일까지)

북경우황청심환 40% OFF	인삼녹용환 백봉환 40% OFF	당뇨병 특효약 옥천환 30% OFF	중국 길림산 녹용 3 BRANCHS 40% OFF
카나다 산 웅담 40% OFF	여행용 가방 삼손 나이트 30% OFF	물개, 뱀가죽 백 30% OFF	남녀청바지· $16.99
고급펜 크로스 30% OFF	피에르·카르뎅 와이샤스 30% OFF	피에르·카르뎅 벨트 30% OFF	기타 : 게브랄티 비타민, 전기다리미, 고급화장품등등

678 BLOOR ST.W. (고려식품 옆)

☎ : 530—0522, 3 조 지 섭, 김 영 철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여기 볼리비아 구렁방아벌레의일생을 아주 재미있게 쓴기사가 한편에 실려있군"

"태어나서 성숙하고죽는데까지 말이야。이게 모두 해서 8시간안에 이루어진다는군"

"그럼 연애할시간이많지않군요, 그렇죠?"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未來의 뉴욕 가상공포映畫로

무법천지가된 맨해턴서脫出
現代文明의 문제점을파헤쳐

◇1997년 무법천지로 휘싸인 뉴욕 맨해턴을 가상해서 만든 영화「뉴욕으로부터의 탈출」。현대도시의 문제점들을 극대화시켰다。

미래의 뉴욕市를 가상해서 만든 영화「뉴욕으로부터의 탈출」이 최근 美國에서 공개돼 화제속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영화속의 무대는 16년후인 1997년의 뉴욕이다。

맨해턴은 인간찌꺼기들이 살고있는 섬으로 된 감옥。살인자, 테러리스트, 사기꾼, 이교도등이 영원히 방향을잃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있는 곳이다。이곳은 장벽이 없는 동물원이며 출구도 없다。다리는 모두 파괴됐고 터널은 무너졌다。물론 정부도 없고 일자리도 없다。삶은 영구적인 먹을 것을 찾아내는 사냥이며 쉬없는 숨바꼭질이다。

이러한 악몽이「뉴욕으로부터의 탈출」에 그려진 상황이다。감독은 존·카펜터。「핼로윈」「안개」등 고전적인 공포영화를 만든 감독이다。

이영화는 일반도시의 공해 범죄등 어두운 면에 앵글을 맞춰 그리고 있어 관객들은 리얼한 화면에서 실제이상의 사실감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것。

「뉴욕으로…」는 단순한 공포영화이기 이전에 도시가안고있는 문제점을 파헤쳐 극대화시킴으로써 現代문명을 비판하고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美國 대통령을 싣고 보스턴으로 가던 비행기가 공중납치되어 과거의 세계무역센터자리에 비상착륙, 대통령은 극적으로 살아남아 맨해턴을 창악하고있는 시민들에게 볼모로 잡힌다。대통령을 구출하기위해 스네이크·플리스켄이라는 젊은 청년을 파견, 무법천지의 지옥 속에서 대통령을 구해낸다는 줄거리다。

「뉴욕으로…」는 한여름을 섬뜩하게 지낼 수 있는 최대의 공포영화이다。【外紙】

외설是非 타잔映畫
누드장면삭제 放映

저작권침해와 외설시비를 놓고 법정으로까지 비화됐던 MGM社의 최신판「타잔」영화「類人猿 타잔」이 소송에서 이겨 예정대로 24일 개봉 됐다。

법원은 외설시비를 빚고있는 누드장면 4군데를 삭제하도록 명령했는데 삭제된부분은 타잔의 여자친구가 브러지어도없이 오랑우탄과 뒹구는 장면과 무시무시한 괴물에게 잡혀먹히기 직전의누드여인등 모두 4군데 4분간이다。【뉴욕=AP】

張吉山 (1616)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76)

『검계는 어떻게 짜여 있었소?』

김기가 물었다。여환이 이경순 대신 답하였다。

『맨처음에 광주 근처에서 정원대라는 사람이 미륵당을 이룩었소이다。각처로 떠돌며 우리 사찰들과 관계를 가지고있던 거사패들이 많이 엮어졌지요。황회거사도 실은 진관사 출신이올시다。고달근이라고 지금 천마산에 있는 이도원래는 안성 청룡사의 사당패 모가비였읍니다。여기에 경강을 중심하여 근근히 살아가던 유민들이며 장사치들이나 관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광주 묘적사를 중심으로 정원태를 위시한 검계가 있었고、경강에서는 서강의 모신이라는 객점주가、그리고 양주에서는 여기 계신 이도삭이 [illegible] 하에서는 저 수두란의 아랫 사람인…』

우더용이 말했다。

『홍천수라고 마포 동막과 칠패에서 거간하던 사람인데、화수(和水)법으로우리 패에 들어왔지。그도역시 객점주요』

김기가 다시 물었다。

『검계는 그러니까 한양인근에 퍼져있었던 셈이고、살주계는 도성 안에 심어졌던 셈이로군。그렇다면그들 두 계가 어찌 연계를맺을 수가 있었소?』

『서강의 모신이란 사람때문이었지요。나도 몇번 만났는데、정말 경강내기로 그의 시세에 처변하는 머리를 당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청파에 있던 살주계의 두령 중길이란 사람이 자주 내왕하였소』

이경순에게 김기는 이어서 물었다。

『제일 먼저 이들 계들이 무엇을하였으며、어떤일이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여기시오?』

『잘 아시듯、갑자년 왜국국서로하여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검계에서 먼저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양반들의 화물을 빼앗았지요。그와 거의 같은 시기에 검계와 살주계가 협력하여 성내의 부자집인 지사의 집을 야반에털어냈고 한양순라의 다섯 복처를 급습했다지요。제가 알기로는 전참판 목내선의집 수노(首奴)되는 사람이 발각되면서 계의 윤곽이 드러난 것으로 압니다。또한 성내에 있었던 살주계의 근거들이 다 밝혀졌고…』

여환이 덧붙였다。

『급박한 시기에 살주계에서는 성내의 곳곳에 양반들을 위협하는 방문을써서 붙이곤 했었지요。그러나 다른 노비들이나 양민들로부터 아무런도움도 받지못했고 소문만 낭자했소。그때 검계에서는 기찰이 번 [illegible] 이기우하며 근거지가 탄로나는실수를저질렀답니다』

박대근이가 집에서 끼이들었다。

『그 총사관이 바로 최형기요。훈련원 제일의 검객이며、좌포청의 얼음같은포도 총사관이지。그리고…』

『구월산의 토포장이던 최만호라는자가 아니오?』

옥여가 물으니 박대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동헌에서 가통인으로도 있었다는 한미한출신으로、우리와 가장 가까울 수 있고 우리 속내를 제 마음같이 아는자요。그 자의 약점은 바로 줄을 댈 데가없어 한때 김익훈의 호종무사 노릇을 한적이 있다는 것이지。허나 그런 약점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장 위험한 점이오。무엇보다도 그자는 우리를 아니깐』

설우징이 말하였다。

『자、다시 검계와 살주계의 얘기를 정리하여야겠소』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지렁이 잡이구함(유경험자에 한함)
최고가격 1000마리당 30달러
☎ : 255-0730

좋은 농장, 좋은 골프장
최고대우 1000마리당 25-30달러
☎ : 532-3637 미스타 게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 대우좋음
MR. JIM OR NICK 1000마리당 $19~$25
☎ : 531-0474

유경험자 지렁이잡이구함 PETER KOTSISAS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잡으실분
구합니다. 좋은 대우 ☎ : 533-0910 피터

입주하셔서 애들(2명) 봐주실분
가게 : 1-723-8632(오후5시까지)
집 : 1-571-0725(오후5시이후)
(콜렉·컬로 전화하십시요) MRS. 홍

입주하셔서 애기 둘 봐 주실분
☎ : 425-6216
미세스 전

가게에서 일하실 남자 풀타임 구함 :
하루10시간 근무. BAY + BLOOR지역
☎ : 968-9221

풀타임으로 그로서리 가게에서 일할
신체건강한 사람 구함
☎ : 690-6572

경험있는 재봉사 & 미싱기술자 구함 :
냉방장치및 식당 구비되어 있음
CO-ORDINATION DRESS LIMITED.
49 SPADINA AVE. 4th FLOOR
☎ : 367-1414

RECEPTIONIST FOR DENTAL OFFICE
EXPERIENCED PREFERRED BUT NOT NECESSARY. MUST BE FLUENT IN ENGLISH & KOREAN.
☎ : 781-9591, 535-2798

급 구
웨이트레스 약간명 모집 628 BLOOR ST. W.
☎ : 536-0290
한 국 관

①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우대 좋은장소
1000마리당 $35
②여름철 낚시미끼용 미모사, 지렁이 거머리등 세일.
LIGHTS밧데리
A & A METRO BAIT SHOP
630 QUEEN ST. E. (Queen × Broadview)
☎ : 463-4997

VENDING TECHNICIAN
Repair & maintain all types of Vending equipment, food service equipment etc.
Ability to read & understand electrical diagram essential.
Car necessary.
5years practical experience or equivalent in the field.
CNIB
☎ : 486-2570

매매및 양도

이주관계로 야마하 피아노급매 :
(3년사용) MRS. 서
☎ : 635-6273

성업중인 가게급매 : 주매상 $5000. 리스5년+5년
옵션. 렌트 $400. 가격 $27000+스탁
☎ : 766-1990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작은가게를 원하시는 분 : 리스5년+5년옵션.
렌트 $650(2층 살림집있음)
☎ : 656-7753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주매상 $5000 (Brimortone × Orton Park Dr.)
956 BRIMORTONE DR. SCARB

FIRE PIT햄버거 식당
주매상 8천불~만불. 가격27만불. 리스20년.
렌트 천7백불 현찰13만불 요함. 순이익8천불
☎ : 1-705-748-9722 피터보로
미스타 김 또는 미스타 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
주매상 $2800. 렌트 $340. 리스5년. 2층에 2베드룸 : $275
☎ : 635-1038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1801 LAWRENCE AVE. E.
SCARB.

스토아 급매 :
주매상 $4,500. 권리금 3만3천
☎ : 423-9899

그로서리가게및 건물급매 :
2층 벽돌건물이며 경쟁이 없고 장래성이 많은 좋은 위치에 있음.
모게지 1st. 9.5%, 2nd 12.5%
458 CALEDONIA RD. ☎ : 781-7080

콘도미니엄 매매
2 베드룸+큰 리빙룸및 부엌 $57,000(협의가능)
냉장고, 스토브, 디쉬워셔.
HWY 427×RATHBURN 오후6시이후
☎ : 622-7162 미스타 리

고급 BEDROOM SET급매 :
경대, 옷장, 2 NIGHT테블(QUEEN SIZE) 침대.
G. E. 냉장고, 커텐, 전축등 급매
☎ : 769-4366(오후5시이후)

아파트단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4000. 리스 5년
☎ : 921-0034, 783-6464(오전10시~오후6시)

가게렌트 : 부촌안에 있는 프라자 BURN KING.
BAKERY DELICATESSEN 또는 COIN LAUNDRY
좋은 장소임 1600~2600 sq. ft.(싼렌트)
531 WEDGEWOOD DR. BURLINGTON
☎ : 844-3151, 844-0121

벡커매매
년매상 $300,000이상+로타리오
☎ : 783-1984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1801 LAWRENCE AVE. E.
SCARB.

GROCERY STORE매매 :
토론토서 160km서북방에 있는 타운. STORE 2000sq. ft.
2층에 방7개, 연매상 $20만, 요구액 $10만(건물포함)
1주일 57시간 개점(일요일 휴점)
☎ : 1-519-327-8368 MR. CHAE

성업중인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
하드웨어 비즈네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에게는 절호의 기회임, 좋은 장소 좋은 장래성, 좋은 가격임.
전화 : 741-4520
CALL JOE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꽃꽂이, 생일,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미 용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 AM~8 PM 휴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시설및 수리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B) 661-5667. (R) 742-9450 MR. 김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김 부 원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박 종 남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악 기 점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0200

에어콘·히팅·냉장고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식 당

大 生 園
찐빵, 각종만두, 두부탕, 닭튀김, 왕새우 볶음,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볶은밥, SEA FOOD.
월~목 11 : 30AM~1 : 00AM, 화 : CLOSE
금, 토 10 : 30AM~2 : 00AM, 일 2 : 00PM~12 : 00 PM
☎ : 929-5048, 961-3539

자동차수리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한 방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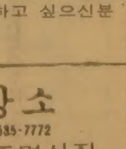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액자, 오일페인팅(유화)판매 조 해 숙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병원 감독자가 될 수 있는 코스를 택하고 싶으신분
시간당 $7, 일주일 코스
☎ : 961-1057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코스모스

숙녀복(SIZE 5-16)
아동복(신생아-16)
항상 저렴한 가격
월~토(오전10시~7시) 일(오후3시~7시)
706 BLOOR ST. W. ☎ : 534-2003

Can Am Coin Investments Ltd. 25년간 경력
금동전, 은동전을 최고가격으로 드립니다.
329 QUEEN ST., WEST · TORONTO, CANADA · M5V 2A4
Telephone: (416) 366-3061 - 366-3062

캐나디안 랩소디 (13)
— Canadian Rhapsody —

글·그림 신 동 헌

새마을 주인 박씨

◇작업중인 박병준씨와 그의 집

흔히들 직업에 귀천이없다고 말하지만 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밴쿠버의 프레이저 강변에 자리잡은 웨스턴·포리스트·프로덕츠(Western Forest Products)제재소의 수리제작부에서 선반공으로 근무하는 박병준씨는신념에찬 어조로 이렇게 말한다.

"내가 생각하는건 직종이 아니라, 무슨 직업이든간에 고용주가 나를 꼭 필요로 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겨줄 때는 나는 귀한 직업인일 테고, 반대로 이 나라의 노동법에 얽매어 마지못해 써줄때는 천한 직업인일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라고 부연한다.

목재가 캐나다 생산품의 태종을 이루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박씨가 근무하는 제재소도 한국의그것과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규모가 크다. 수령 몇백년은 되었을 아름드리 시다(전나무의 일종)통나무를 강에서 끌어올리는 것으로부터 무서운 속도로 도는 회전톱으로 순식간에 무우썰듯이 각목으로 만들어품질선별을 거쳐 포장되기까지 모든 과정이 콤베어·시스템으로 되어있는 것 까지는 좋은데, 역시 기계는 기계어느 한 부분이 고장나도 전 생산과정이 올·스톱되어야 한다.

각부품을 점검하고 수리해서 탈없이 작동하도록하는것이 박씨가맡은 임무이다. 말하자면 큰 제재소의 홈·닥터나 다름없는 직책인 것이다.

그런데 강철부품을 깎을때의 허용오차는 1천분의1인치 이내라야만 한다. 사람의 머리털이 평균 1천분의 4인치라고하니 머리카락 굵기의 4분의1이내의오차라야 된다는 극도의 정밀을 요하는 작업이다. 어지간한 숙련공이 아니고서는 엄두도 못내는 일이다.

박씨는 이회사 근무4년동안 타고난 근면성실성으로 열심히 일해왔다. 어떤때는 야밤에도 긴급연락이 와서 자다가 깨어나 밤길을 차를달려 회사로 가면서 책임의 막중함에 긍지를 느끼고, 또한 멀리에있는 자매회사로부터도 전화로 상황설명과 수치등을연락받고 부품을 만들어 보내면 꼭 들어맞아 제대로 돌아간다는 칭찬을 받을때는 정말 흡쾌하다고 한다.

"끽—"쇠를깎는 신경도 에이는듯한 간단없는 소음속에서 지내는 일과도 박씨에게는 매시니스트로서의 보람되고 만족스런 나날이라고 흡족해 한다.

그는 또한가지 특기를갖고있다. 새를기르는 기술이다. 애기의 첫머리는 15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66년에 결혼했을때 신혼여행 비용에서 500원을 절약하여 십자매 3쌍을사서 기른데서 부터이다. 우리나라에 새기르기붐이 일어나기 직전의 일이다. 단칸방 신혼생활을 새와함께 지내면서 신부에게는 물론이지만 새에게도 무한한 애정을 느끼게 되었고, 새는 점점 늘어나 69년 단신 취업차 월남으로 갔을때는 남은 식구들이 450쌍의 새를 길러 월평균 15만원정도의 수입을 올렸고, 이웃에도독려하여 순식간에 온마을에 퍼졌으니 집집마다 새를키우는 "새의마을"뜻의"새마을 운동이"이 일어나 고·박대통령이 작사작곡 했다는 "새마을 노래"에 한·스텝 앞서서 새들이 부르는 "지지배배"의 새마을의 노래가 울려퍼진 것이다.

그러자 박씨는 마산 교도소의 고선훈 교무과장을 알게되어 어떤 희한한 일을 착안하게 되었다. 사회에서 죄를 지었을망정 살벌한 감방에서 거치른 인생을 보내는 불쌍한 복역수들에게도 새기르기를 권장해 보겠다는 결심이었다. 그것은 여간한 의지력과인내를 요하는 일이 아니었다. 자기의 직장도 마산으로 옮겨 주일마다 교도소에 드나들면서 열심히 새기르는법을 가르쳤다. 그의 꾸준한 노력은 얼마안가서 큰 효과를보기 시작했다. 어떤 죄수는"내가키우는새들은 고독한 감방속의 다시없는 좋은 벗들입니다. 새들의 부부애, 새끼에대한 사랑에서 배우는것이 많으니 인젠 나도 인생의 참뜻을 깨닫게 되었읍니다"라고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최근 박씨는 뱅쿠버 근교의 우거진 전나무 숲속에 새로운 저택을 마련하고, 노모와 함께 대대적인 새기르기를 시작하였다. 집살때의 은행 몰게이지도 새의 판매금으로 충당한다니 대단한 일이다.

이곳 교포들에게도 부업으로 널리 보급시켜 한국에서 있었던 붐을 캐나다에서 다시 일으켜 보려는 꿈에 부풀어 있다. 그는기회가 있을때마다 이곳에서 쓸쓸히 여생을 보내는 노인네들을 한꺼번에 수십명씩이나 자기집에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 해드리고 위로하는 선행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빈곤속에서 자라나 오로지 성실과 사랑을 생활의 신조로 삼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박씨에게서 순박한 인간애를 느끼며, 모범이민의 전형을보는것 같아 모든일이 그의 뜻대로 이루어 지기를 기원하는마음 간절하다.

(계속)

〈건강생활 시리즈〉

건강의 비결 ⑤

돈밀약국 이 요 한

한국인도 마찬가지로 지방질을 많이 섭취하는 나라에 왔으니 같은 이론이 되겠다. 물론 이곳에서 태어난 2세들은 이나라 음식을 먹게되므로 백인들과같은 발암의 위험도를 갖게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제7일 안식일 교우중에는 Vegetarian(채식가)이 많은데, 역시 암의 발생도 적다고 한다.

아프리카 인들은 섬유질이 많은 야채를 많이 먹는데, 그들 에게서는 거의 대장암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방질의 섭취량을 줄이고, 섬유질이 많은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는것이 좋다고 하겠다. 이같이 암은 우리의 식생활 방식에 큰 영향을 받는다. 식생활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가정의 주부는 Shopping할때에 맛있고 보기좋고 요리하기 쉬운것, 그리고 값이 싼것을 찾는것도 중요하지만 값이 비싸도 맛이 없어도 가정의 건강을 생각해서 해야하지 않겠는가!

7. 체중을 조절하자.

우리는 음식이 풍부한나라에 산다. 식욕이 인간의 3대욕망의 하나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매일먹고 마시는 음식이 자기의 현재의 또는 장래의 건강에 좋고 나쁜가를 생각하기 전에 우선 먹는 즐거움(식도락)을 더 생각하게마련이다.

영양가를 논하기에 앞서 맛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게 마련이다.

캐나다는 가장좋은 의료제도를 갖고있지만 가장건강한 국가는 아니다. 모두다 시간에 쫓기다보니 많은 인스탄트 후드(간이식품)이 나왔고, 많은 Junk food이 나와있다. 식품가공업자들을 나쁘게 생각하기 보다는 맛을 위주로 사먹는 소비자역시 나쁘지않은가?

북미에는 엄청난 다수인이 비만증이 되어있다. 이는 백인을 말하는 것일것이고, 한국에서온 이민자들 중에는 그렇지 않으리라 믿는다.

체중이 많다고해서 물론 다 비만증은 아니다. 운동선수들은 흔히 체중이 초과됐어도 비만증은 아니다. 즉 지방질이 축적된것이아니다.

체내에 지방이 축적하게되는것은 은행에 돈이 늘어나는 것과같다. 다시말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가(Calories)가 소비하는것보다 많으면 자연 지방질의 저축은 시작된다 (계속)

이상적인 체중

25세 이상 남자

키① ft. in.	cm.	작은 체구 lbs.	kg.	중간체구 lbs.	kg.	큰 체구 lbs.	kg.
5' 2"	158	112 - 120	51 - 55	118 - 129	54 - 59	126 - 141	57 - 64
5' 3"	160	115 - 123	52 - 56	121 - 133	55 - 60	129 - 144	59 - 65
5' 4"	163	118 - 126	54 - 57	124 - 136	56 - 62	132 - 148	60 - 67
5' 5"	165	121 - 129	55 - 59	127 - 139	58 - 63	135 - 152	61 - 69
5' 6"	168	124 - 133	56 - 60	130 - 143	59 - 65	138 - 156	63 - 71
5' 7"	170	128 - 137	58 - 62	134 - 147	61 - 67	142 - 161	65 - 73
5' 8"	173	132 - 141	60 - 64	138 - 152	63 - 69	147 - 166	67 - 75
5' 9"	175	136 - 145	62 - 66	142 - 156	65 - 71	151 - 170	69 - 77
5' 10"	178	140 - 150	64 - 68	146 - 160	66 - 73	155 - 174	70 - 79
5' 11"	180	144 - 154	65 - 70	150 - 165	68 - 75	159 - 179	72 - 81
6' 0"	183	148 - 158	67 - 72	154 - 170	70 - 77	164 - 184	74 - 84
6' 1"	185	152 - 162	69 - 74	158 - 175	72 - 80	168 - 189	76 - 86
6' 2"	187	156 - 167	71 - 76	162 - 180	74 - 82	173 - 194	79 - 88
6' 3"	191	160 - 171	73 - 78	167 - 185	76 - 84	178 - 199	81 - 90
6' 4"	193	164 - 175	75 - 80	172 - 190	78 - 86	182 - 204	83 - 93

25세 이상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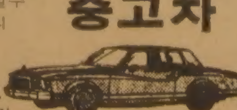
키② ft. in.	cm.	작은 체구 lbs.	kg.	중간 체구 lbs.	kg.	큰 체구 lbs.	kg.
4' 10"	147	92 - 98	42 - 45	96 - 107	44 - 49	104 - 119	47 - 54
4' 11"	150	94 - 101	43 - 46	98 - 110	45 - 50	106 - 122	48 - 55
5' 0"	152	96 - 104	44 - 47	101 - 113	46 - 51	109 - 125	50 - 57
5' 1"	155	99 - 107	45 - 49	104 - 116	47 - 53	112 - 128	51 - 58
5' 2"	157	102 - 110	46 - 50	107 - 119	49 - 54	115 - 131	52 - 60
5' 3"	160	105 - 113	48 - 51	110 - 122	50 - 55	118 - 134	54 - 61
5' 4"	163	108 - 116	49 - 53	113 - 126	51 - 57	121 - 138	55 - 63
5' 5"	165	111 - 119	50 - 54	116 - 130	53 - 59	125 - 142	57 - 65
5' 6"	168	114 - 123	52 - 56	120 - 135	55 - 61	129 - 146	59 - 66
5' 7"	170	118 - 127	54 - 58	124 - 139	56 - 63	133 - 150	60 - 68
5' 8"	173	122 - 131	55 - 60	128 - 143	58 - 65	137 - 154	62 - 70
5' 9"	175	126 - 135	57 - 61	132 - 147	60 - 67	141 - 158	64 - 72
5' 10"	178	130 - 140	59 - 64	136 - 151	62 - 69	145 - 163	66 - 74
5' 11"	180	134 - 144	61 - 65	140 - 155	64 - 70	149 - 168	68 - 76
6' 0"	183	138 - 148	63 - 67	144 - 159	65 - 72	153 - 173	70 - 79

①높이 1인치 구두 신었을 때 ② 높이 2인치 구두 신었을 때
※18~25세 사이는 25세 이하 1년마다 1파운드(1bs)씩 삭감할것.

주식회사
신의상사
취급품목 ◆담배류
◆쵸코렛및 캔디류
◆GROCERY BAG류
116 TYCOS DR. TORONTO
TEL. 781-6669 * 781-6660 * 781-6012
대표 문인식

GM
NORTH YORK CHEVROLET OLDSMOBILE
친애하는 피민여러분
항상 아낌없이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월1일부터 저희 회사에서는 종전과 같은 주소에 카나다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제일 큰 쇼—룸과 써비스 시설을 갖추고 여러분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써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되었아오니 1차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병 권 올림

김 병 권
새차및 중고차



7200 YONGE ST
THORNHILL L4J 1V8
☎: (B) 881—5000, (R) 496—0954

광고를하시기
경기가 침체할수록 광고는 더욱 필요합니다.
그러나 광고비용은 절대 줄여야 합니다. 때문에 어떠한 광고 매체를 언제선택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한국일보 광고부제공
광고문의 : 533—2361

Addison
BUICK
PONTIAC
CADDILLAC
Cadillac

원 재 훈
새차와 중고차 LEASING
전 북미주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GM의 신형모델 J2000기 에디슨에 나와 있읍니다. 각종외국 수입품보다 Engineering Technology, Gas Mileage에서 월등하며 GM역사상 가장 센세이숀널 J2000을 시운전 해보시고 북미의 이 새로운 Feeling을 체험해 보세요.
ADDISON BAY at COLLEGE
(B) 964—3211 Howard Won